



【데이터 인사이트】 인도네시아 유망품목군 수출 확대 전략

【데이터 인사이트】 인도네시아 유망품목군 수출 확대 전략



목 차

요약	1
제1장 인도네시아 경제 분석	4
제1절 거시경제 동향	4
제2절 대외교역 및 투자 동향	9
제2장 유망품목 분석	16
제1절 유망품목 도출	16
제2절 50대 유망품목	17
제3장 유망품목군별 수출 확대 전략	44
제1절 유망품목군 분류	44
제2절 수출 확대 전략	46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62

요 약

□ 글로벌 경제국으로 도약하는 인도네시아

P 정치	▶ 'Making Indonesia 4.0' 정책과 지정학적 이점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대 제조업(자동차, 전자 등) 집중 육성과 세계 10대 산업국 진입 목표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석 수출금지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유도 G20, ASEAN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주도를 통한 국제사회 입지 강화
E 경제	▶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최대 경제국의 규모 확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1위, 세계 16위 수준 경제 규모 보유국 경제성장률 5%대 전망, 세계 평균(2.8%) 대비 높은 수준 유지 제조업 GDP 비중 가장 크며 최근 물류운송업, IT산업 성장 강세
S 사회	▶ 세계 4위 인구(2.76억 명) 기반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잠재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억 명 이상의 노동 가능 인구와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국민소득 연평균 6.4% 성장 기록하며 구매력 지속 상승 단일국 최다 이슬람 인구로 할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최적
T 기술	▶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도모와 디지털 라이프의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연기관차 및 전기차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집중 육성 계획 교통, 무역, 금융, 교육, 농업 등 10대 우선 분야 국가 디지털 정책 세계 1위 수준의 모바일 사용시간과 디지털 친화력
E 환경	▶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중심의 국가 대전환기 돌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과밀, 지반 침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 이전 국가 프로젝트 '미래 스마트 열대우림 도시' 누산타라 신수도, 2045년 탄소중립 목표 석탄화력발전 건설 금지로 탈탄소화 및 친환경 전환 본격화
L 법률	▶ 시대변화 반영 구조개혁, 필수 인증 등 현지 법령·인허가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 정책의 핵심인 옴니버스법 49개 시행령으로 외국인 투자 우대 분야, 고용환경, 인허가 등 정립 2024년부터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 인도네시아의 주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이나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으며, 최근 對말레이시아 수입 급증이 특이점
 - * '18~'22년 인니의 對중·싱·일 수입 의존도(%) : 45.0 → 45.6 → 44.3 → 44.0 → 43.9
 - ** 말레이시아는 급성장세(3개년 CAGR, 17.3%)로 '22년 인도네시아 수입 대상국 4위에 등극
- 20년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대상국 상위권(4~9위)에만 위치, 경쟁 우위 선점 전략과 수출 확대를 최상위권(3위권 내) 도약 필요
 - * 한국 순위 : ('03~'10) 6~9위 → ('11) 4위 → ('12~'13) 5위 → ('14) 4위 → ('15~'22) 5~7위

요 약

□ 50대 유망품목 및 수출 확대 전략

-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50대 유망품목 도출과 품목군별 핵심 전략을 제시
- 현지 제조업 육성, 인프라 개발 등 주요 정책으로 인해 화학공학, 기계, 철강·금속, 전기·전자, 건설·중장비 분야 관련 품목 다수 분포

<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유망품목군 >

품목군	내용	
1군 (15개)	HS코드	• 2106.90 2710.19 2803.00 3304.99 3902.30 3909.50 6004.10 6006.32 7210.70 7225.50 7228.30 7606.12 8402.90 8429.52 8542.31
	주요 특징	•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력 또한 우수한 수준인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주력 상품 • 소비재(건강식품, 화장품)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한류 열풍, 현지 소득수준 상승, 팬데믹 이후 건강 인식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2군 (10개)	HS코드	• 3901.90 3906.90 7326.90 7601.20 8413.70 8431.49 8479.89 8481.80 8534.00 8542.90
	주요 특징	•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 시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을 대폭 개선하는 등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확대 도모 집중상품 • 산업 발전의 기반인 기계류 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며, 정밀화학제품(합성수지)과 전자부품(인쇄회로, 메모리 모듈 등)이 뒤를 이음
3군 (10개)	HS코드	• 3208.90 3808.92 3907.30 3907.40 6006.90 6406.20 7213.91 8413.81 8421.31 8428.90
	주요 특징	• 한국 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력은 일정 수준 확보되었으나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 규모의 한계로 능동적인 개척을 필요한 품목군 • 자동차 부품(내연기관 공기 여과기) 및 중장비(적하 기계 등) 품목은 현지 산업 발전 및 수도이전 정책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가 기대됨
4군 (15개)	HS코드	• 2934.99 3910.00 4819.20 6902.10 7208.51 7225.92 7305.11 8419.90 8421.21 8428.33 8477.90 8479.90 8537.20 8543.70 8544.42
	주요 특징	•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의 규모 확대와 한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품목군으로 상대적으로 중장기 접근을 요구하는 품목군 • 기계(사출성형 기계, 증류기 등), 철강(바·합금강 평판 압연 등), 전기기기(변압기, 와이어하네스 등) 등 다양한 산업 품목이 고루 분포

요 약

< 유망품목군별 수출 확대 전략 >

품목군	수출 확대 전략
【1군】 시장규모 ↑ 한국M/S ↑	▶ 프리미엄화 및 시장 선도 전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화를 통한 수익 확대 도모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기술 및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
【2군】 시장규모 ↑ 한국M/S ↓	▶ 차별화 마케팅 및 기회 포착 전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홍보 마케팅으로 현지 인지도 및 점유율 확대 점유율 상위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 벤치마킹 수평적 확장을 통한 비유기적 성장
【3군】 시장규모 ↓ 한국M/S ↑	▶ 현지 산업 주도 및 개척 전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정부 및 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산업 발전을 주도 시범사업을 통한 신산업 육성 시장 리더십 강화
【4군】 시장규모 ↓ 한국M/S ↓	▶ 중장기 전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로드맵 수립 산업 육성정책 및 제도 동향 모니터링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 각각의 품목군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기에 기업의 목표와 역량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
-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수출 확대 전략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
-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처가 함께 이뤄져야만 하며, 인도네시아를 협력 파트너로 인지하고 양국 간의 상생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 ◆ 글로벌 공급망 이점 활용,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 신산업 및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한 경제 및 산업 구조개혁 추진으로 아세안 최대 경제국 규모 확대 지속
-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 순이나 최근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이 급증(3개년 CAGR 17.3%)하며 4대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 한국은 5대 수입 대상국

제1장 인도네시아 경제 분석

제1절 거시경제 동향 : PESTEL 분석

□ [P, 정치] ‘Making Indonesia 4.0’ 정책과 지정학적 이점 적극 활용

- 2018년 발표한 국가 로드맵인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통해 7대 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 진입 목표
 - 기존 5대 분야(△자동차, △전자, △화학, △섬유, △식음료)에 고부가가치 산업(△의료기기, △제약)을 추가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자국 내 산업 육성 도모
 -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원광석 수출금지를 통해 해외기업의 현지 제련소 설립과 다운스트림 산업 발전을 유도하며 자원부국 이점 극대화 추진 중
 - * 구리, 철, 아연, 납 등의 광물은 수출을 허용하나 정제시설 건설 진행률에 따른 수출 관세 부과

< 인도네시아 주요 광석 매장량 >

광종	매장량	세계 순위	비중	활용 분야
니켈	2,100만 톤	1위	21%	배터리 양극재, 철강
주석	80만 톤	1위	17%	전자제품
코발트	60만 톤	3위	7%	배터리 양극재
보크사이트·알루미나	10억 톤	6위	3%	알루미늄 정제
구리	2,400만 톤	10위	3%	인쇄회로, 합금석

* 자료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3

- 국제회의 주도 등을 통한 국제사회 입지 강화와 대외 협력 적극 도모
 - G20 정상회의(‘22.11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 협상(‘23.3월), ASEAN 정상회의(‘23.5월) 개최 등 단기간 내 국제사회 협력 집중 주도
 - * 2023 아세안 정상회의 3대 축 : △회복 및 재건,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성
 - 특히, 올해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으로 양국 협력과제 구체적 이행 기대
 - * ‘22.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 시 양국은 △친환경 투자 촉진, △신수도 건설 참여, △수도이전 개발 기술협력, △해양 협력, △전력인프라 개발 협력 관련 MOU 체결

□ [E, 경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최대 경제국의 규모 확대 지속

○ 아세안 1위, 세계 16위 경제 규모 보유국으로 높은 성장세가 주요 특징

- 2020년 코로나19 역성장 기록 후 회복세 전환에 성공하며 규모 지속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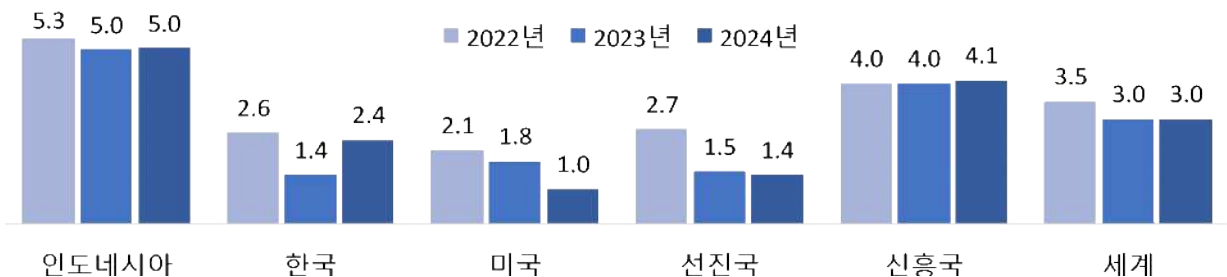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 및 성장률(단위 : 억 달러, 현지화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GDP	10,427	11,195	10,625	11,877	13,188
성장률	5.2	5.0	△2.1	3.7	5.3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3.4월)

- 또한, 세계 평균 및 주요 국가·경제권 대비 높은 수준의 성장률 유지 전망

< 주요 경제권별 경제성장률(단위 : %)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3.7월)

○ 제조업, 유통업, 농림어업, 광업이 국가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나, 최근 물류운송업과 정보통신업의 약진으로 향후 국가 산업 구조 변동 가능성 존재

- 팬데믹 영향으로 물류운송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이를 완전히 회복하여 2022년 20%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반면, IT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됨에 향후 디지털 주도 경제 전환 기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및 성장률(단위 : %, 전년 대비 %)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GDP 비중	성장률	GDP 비중	성장률	GDP 비중	성장률
제조업	19.9	△2.9	19.2	3.4	18.3	4.9
도소매 유통업	12.9	△3.8	13.0	4.6	12.8	5.5
농림어업	13.7	1.8	13.3	1.9	12.4	2.3
광업	6.4	△2.0	9.0	4.0	12.2	4.4
건설업	10.7	△3.3	10.4	2.8	9.8	2.0
물류운송업	4.5	△15.1	4.2	3.2	5.0	19.9
정보통신업	4.5	10.6	4.4	6.8	4.1	7.7
금융보험업	4.5	3.3	4.3	1.6	4.1	1.9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S, 사회] 세계 4위 인구 기반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잠재력 보유

○ 2.76억 명의 거대 인구와 소득수준 증가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

- 2억 명 이상의 노동 가능 인구(15세 이상)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68.6%)*

*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 경제활동 인구 비율

** '22년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 세계은행) : 인도 52.4, 미국 62.2, 일본 62.5, 한국 64.2

< 2022년 인도네시아 인구구조 >

인구수	인구증가율(3개년)	15세 이상 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276백만 명	1.17%	209백만 명	68.6%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1인당 국민소득 최근 5년간 연평균 6.4% 성장 기록하며 구매력 지속 상승 중

* '18~'22년 1인당 국민소득(만 루피아, 인니 통계청) : 4,100 → 4,268 → 4,236 → 4,610 → 5,219

** 1만 루피아 = 872원 ('22년도 평균환율, 하나은행 최종 고시 기준)

○ 단일국 최다 이슬람 인구와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인 MUI 소재 국가

- 코로나19 이후 안전 및 청결에 대한 인식 제고로 할랄 인증은 기존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생산·유통 과정 중 하나의 소비문화로 확대 중

- 중동, 서남아시아 등 글로벌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베드

< 세계 이슬람 인구 순위(단위 : 백만 명) >

순위	국가	이슬람 인구	자국 비중	세계 비중	순위	국가	이슬람 인구	자국 비중	세계 비중
1	인도네시아	229	87%	13%	5	나이지리아	99	50%	5%
2	파키스탄	200	97%	11%	6	이집트	88	92%	5%
3	인도	195	14%	11%	7	이란	83	99%	5%
4	방글라데시	153	90%	9%	8	튀르키예	80	99%	5%

* 자료 : World Population Review

□ [T, 기술]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도모와 디지털 라이프의 내재화

○ 글로벌 내연기관차 및 전기차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집중 육성 계획

- '전기차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19.8월)과 '자동차 산업 로드맵'('20.9월)을 통한 인도네시아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 확대 의지 공포

* '25년까지 전기차 비중 25% 달성,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비 등

- 다운스트림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산부품사용요건(TKND) 지속 확대

* (4륜 이상 전기차) '30년까지 국산 부품 80%, (2·3륜) '26년까지 국산 부품 80%

○ 국가 단위 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과 디지털 친화의 가속화

- '디지털 로드맵 2021~2024'를 통해 10개 우선 분야* 설정과 ①인프라 구축, ②전자 행정 구축, ③디지털 인재 육성, ④디지털 사회 개발 등을 추진 중
 - * 교통, 관광, 무역, 금융 서비스, 미디어·엔터, 농업, 스마트시티, 교육, 헬스케어, 산업
- 모바일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 중이며, 특히 모바일 취약 연령대로 구분될 수 있는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사용률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 '22년 인도네시아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5.39시간으로 세계 1위 수준(Statista)

< 인도네시아 연령대별 모바일 사용률(단위 :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15세 미만	26.5	28.9	25.0	38.3	40.3	14.0
15~24세	86.4	87.6	87.8	90.8	91.8	1.3
25~64세	71.5	72.3	72.4	72.1	74.1	1.3
65세 이상	24.3	24.9	25.7	25.8	27.5	4.8
전체	62.4	63.5	62.8	65.9	67.9	2.6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E, 환경]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중심의 국가 대전환기 돌입

- 자바섬 인구 과밀, 지반 침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누산타라 신수도 이전
 - 미래 스마트 열대우림 도시(Future Smart Forest City)로 '45년 탄소중립 도시 목표
 - * 녹지 75% 이상, 재생에너지 수요 100% 충족, 친환경적 교통수단 운영 목표
 - 340억 달러 규모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정부 예산 20%, 민간투자 80% 계획
 - * 정부령 제12호('23.3월)를 통해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면제, 장기 토지 권리 등 인센티브 제시

< 인도네시아 지역별 인구밀도(단위 : 천 명/km²) >



* 자료 : IMF, 인도네시아 통계청 종합

-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로 탈탄소화 및 친환경 전환 본격화
 -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현재 60% 수준이나, 향후 신규 발전소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 기준을 도입하며 제도적 기틀을 마련
 - *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22.9월)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2위 국가 탈피를 위해 플라스틱 대체품 개발, 관련 인프라 투자로 ‘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30% 축소, 수거·처리율 80%로 확대 등 궁극적으로 ‘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원천 제거를 목표로 설정
 - * 자료 : Indonesia National Plastic Action Partnership, World Economic Forum 2020

□ [L, 법률] 시대에 맞춘 구조개혁, 필수 인증 등 현지 법령·인허가 재정립

-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 정책의 핵심인 옴니버스법과 시행령
 -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옴니버스법, ‘20.11월)’ 제정 후 ‘21.2월에 49개 시행령 공포
 - * 45개 정부령(노무, 인허가, 건설, 환경보호, 무역 등), 4개 대통령령(투자사업, 정부조달 등)
 - ①외국인 투자 분야 개방, ②고용환경 개선, ③위험에 기반한 인허가 절차 변경 등이 우리 기업이 참고할 만한 주요 사항

< 옴니버스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투자 분야 개방	투자 금지	·투자 금지 업종을 기존 20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투자 우대 분야 신설		
		·△마약, △화학무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카지노, △산호초·오존층 파괴 화학물질, △중앙정부 필수 수행 업종 금지	조건부 가능	·최대 지분을 제한, 특정 허가 취득, 지역 제한 등 일정 조건 아래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 : (기존) 350개 → (축소) 46개
	중소기업 지정·협업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	투자 우대	·정부 중점 투자유치 산업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다양한 혜택 제공
투자사업 인허가	·인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Online Single System)으로 일원화 ·저/중저/중고/고 위험도에 따라 4가지 인허가 요건을 구분			
노무	·외국 인력 고용 허가 면제 대상 범위 추가 : 긴급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 기간 연구 활동 등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 폐지, 주별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주지사에게 일임 ·근로계약 해지 시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 제도 신설			

* 자료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2023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 인증·인허가 등 현지 진출 시 필수적 대비가 필요한 비관세 제도 존재
 - 식약청(BPOM), 기술표준(SNI), 보건부 의료기기(ALKES) 수입 인증 필요
 - * 대상 : (BPOM) 화장품, 식품, 의약품, (SNI)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ALKES) 의료기기, 건강보조기구
 - 2024년부터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등 제품 전반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 * '19년부터 신 할랄인증제도가 시행됐지만, 할랄보장청의 제도 준비로 '24년까지 의무 유예

제2절 대외교역 및 투자 동향

가. 대외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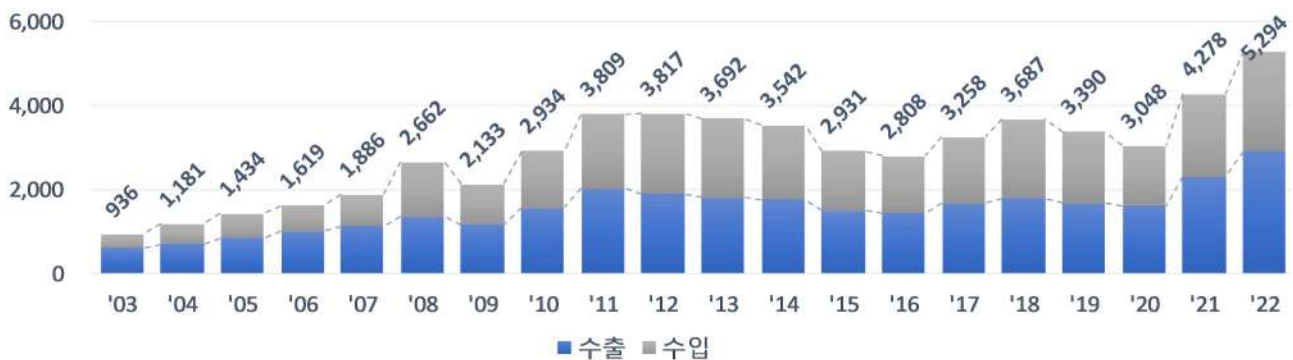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대외교역 동향

- 지난 20년간 연평균 9.4% 성장으로 세계 경제 입지 확대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08), 역오일쇼크('14), 코로나19('20) 등 세계 경제 위기마다 회복세 전환에 성공하며 글로벌 무역에서의 입지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
 - * 인니의 무역 규모 세계 순위('03→'22):(교역) 33위→28위, (수출) 28위→25위, (수입) 38위→25위
 - 2010년대에 무역적자 등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적을 보였으나,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광물 보유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교역규모 확대 및 수지 개선에 성공

< 인도네시아의 대외교역 추이(단위: 억 달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611	716	857	1,008	1,141	1,370	1,165	1,578	2,035	1,900
수입	326	465	577	611	745	1,292	968	1,357	1,774	1,917
교역액	936	1,181	1,434	1,619	1,886	2,662	2,133	2,934	3,809	3,817
수지	285	251	280	397	396	78	197	221	261	△17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	1,826	1,760	1,504	1,451	1,688	1,800	1,677	1,632	2,316	2,920
수입	1,866	1,782	1,427	1,357	1,570	1,887	1,713	1,416	1,962	2,374
교역액	3,692	3,542	2,931	2,808	3,258	3,687	3,390	3,048	4,278	5,294
수지	△41	△22	77	95	118	△87	△36	216	354	545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주요 교역 대상국은 7개 국가 내에서 움직이나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
 - 지난 10년간 상위 7개 국가 구성의 변동은 없었으며 2013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한 뒤 인니 대외교역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름
 - 한국은 2012년에 인도네시아의 4대 교역국에 등극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양국 교역액이 130억 달러대로 감소하며 현재 6대 교역 대상국에 위치

<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위	중국(727)	중국(729)	중국(714)	중국(1,100)	중국(1,336)
2위	일본(374)	일본(317)	미국(272)	미국(370)	일본(420)
3위	싱가포르(344)	싱가포르(305)	일본(243)	일본(325)	미국(398)
4위	미국(286)	미국(271)	싱가포르(230)	싱가포르(271)	싱가포르(338)
5위	한국(186)	말레이시아(166)	말레이시아(150)	말레이시아(214)	말레이시아(279)
6위	말레이시아(179)	태국(157)	한국(134)	한국(184)	한국(245)
7위	태국(178)	한국(157)	태국(116)	태국(162)	태국(192)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 동향

- 2022년 수출 2,92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액 갱신 중
 - 광물성 연료 에너지(HS 27)와 동식물성 유지(HS 15)가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
 - 철강(HS 72) 수출 규모가 급성장하며 인도네시아의 3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
 - * 인니 철강 수출 비중 및 순위 : ('18) 3.2%, 7위 → ('22) 9.5%, 3위
 - 이외로도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광물(광석(HS 26), 구리·니켈·알루미늄 제품(HS 74~76)) 수출액 증가가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 성장에 기여
 - * 인니 HS 26, 74, 75, 76 對세계 수출액(억 달러) : ('20) 65 → ('21) 115 → ('22) 200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 추이(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전체	1,802 (7.5)	1,670 (△7.3)	1,633 (△2.2)	2,315 (41.8)	2,920 (26.1)	11.7
연료 에너지	420 (14.1)	347 (△17.3)	256 (△26.3)	451 (76.4)	710 (57.4)	14.0
동식물성 유지	203 (△11.4)	175 (△13.8)	207 (18.1)	328 (58.4)	352 (7.2)	8.9
철강	58 (71.7)	74 (28.9)	108 (46.4)	209 (93.1)	278 (32.8)	52.7
전자기기	89 (4.6)	83 (△5.7)	92 (10.7)	118 (27.5)	146 (23.6)	11.4
자동차·부품	76 (10.5)	8.1 (7.9)	66 (△19.0)	86 (30.8)	110 (27.1)	9.9

* HS코드 2단위 기준, 누적 금액 상위 5개 품목 기재

** 자료 : S&P Global Trade Atlas

< SITC 기준 인도네시아의 수출 구성(단위 : 억 달러, %) >

SITC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 물질	255	16	451	19	710	24
재료별 제조제품	286	18	438	19	510	17
기계 및 운수장비	214	13	270	12	339	12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97	12	309	13	327	11
기타 제조제품	198	12	258	11	298	10
비식용원재료(연료 제외)	140	9	205	9	298	10
화학물 및 관련 제품	127	8	187	8	222	8
식품 및 산동물	146	9	169	7	189	6
음료 및 담배	12	1	13	1	14	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57	3	16	1	12	0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3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

- 중국, 일본, 미국 3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의존도는 40% 수준이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지속 증가하여 현재 20% 이상을 차지

* '18~'22년 인니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 : 15.1 → 16.7 → 19.5 → 23.2 → 22.6

- 對한국 수출액은 5년 전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순위는 5위 → 7위로 하락

* '18~'22년 인니의 對한국 수출 의존도(%) : 5.3 → 4.3 → 4.0 → 3.9 → 4.4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단위 : 억 달러) >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위	중국(271)	중국(280)	중국(318)	중국(538)	중국(659)
2위	일본(195)	미국(178)	미국(186)	미국(258)	미국(282)
3위	미국(184)	일본(160)	일본(137)	일본(179)	일본(248)
4위	싱가포르(129)	싱가포르(129)	싱가포르(107)	말레이시아(120)	말레이시아(155)
5위	한국(95)	말레이시아(88)	말레이시아(81)	싱가포르(116)	싱가포르(144)
6위	말레이시아(93)	한국(72)	한국(65)	한국(90)	필리핀(129)
7위	필리핀(68)	필리핀(68)	필리핀(59)	필리핀(86)	한국(128)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최근 3년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 연평균성장률(CAGR)(단위 : %) >

구분	세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전체	20.5	21.1	33.2	16.9	16.0
주요 강세 품목	철강 55	광석·슬랙·회 115	철강 83	동식물성 유지 48	광석·슬랙·회 129
	광석·슬랙·회 49	무기화합물 56	화공생산품 29	전자기기 46	연료 에너지 25
	화공생산품 28	화공생산품 30	니켈 제품 29	신발류 22	니켈 제품 16

* 주요 강세 품목 : 상대국별 최근 3년 수입 규모 상위 10개 품목 중 성장률 순으로 추출

** 자료 : S&P Global Trade Atlas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 동향

- 2022년 수입 2,374억 달러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입액 갱신 중
 - 팬데믹 이후 회복세 전환과 교역 확대에 성공하며 5년 평균 성장률 8.6% 기록
 - 지난 5년간 수입 상위 5개 품목 구성은 변동이 없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
 - * '18~'22년 상위 5개 품목의 전체 수입액 비중(%) : 53 → 52 → 50 → 51 → 54
 - 수입 최대 품목인 광물성 연료 에너지(HS 27)는 국제 유가 변동과 유사 추세
 - * '18~'22년 두바이유 평균가(달러/배럴, 석유공사) : 69.66 → 63.53 → 42.29 → 69.41 → 96.41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 추이(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전체	1,879 (19.7)	1,704 (△9.3)	1,416 (△16.9)	1,962 (38.5)	2,374 (21.0)	8.6
연료 에너지	315 (23.7)	235 (△25.4)	158 (△32.8)	288 (82.8)	449 (55.7)	12.0
기계·보일러	271 (24.3)	268 (△1.1)	218 (△18.5)	258 (18.5)	316 (22.2)	7.7
전자기기	213 (19.0)	196 (△8.2)	191 (△2.6)	223 (17.1)	264 (18.1)	8.0
철강	102 (27.9)	104 (1.7)	69 (△34.0)	120 (74.4)	139 (16.5)	11.8
플라스틱·제품	92 (18.7)	87 (△5.2)	72 (△17.8)	102 (42.4)	111 (9.2)	7.6

* HS코드 2단위 기준, 누적 금액 상위 5개 품목 기재

** 자료 : S&P Global Trade Atlas

< SITC 기준 인도네시아의 수입 구성(단위 : 억 달러, %) >

SITC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기계 및 운수장비	467	33	569	29	702	30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158	11	288	15	449	19
재료별 제조제품	228	16	327	17	375	16
화학물 및 관련제품	215	15	326	17	334	14
식품 및 산동물	154	11	196	10	226	10
비식용원재료(연료 제외)	73	5	113	6	120	5
기타 제조제품	92	6	104	5	119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19	1	27	1	35	1
음료 및 담배	8	1	9	0	10	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2	0	3	0	3	0

- 주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이나 최근 對말레이시아 수입 급증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 중 40% 이상이 중국, 싱가포르, 일본 3개국으로부터 수입되나 그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
 - * '18~'22년 인니의 對중·싱·일 수입 의존도(%) : 45.0 → 45.6 → 44.3 → 44.0 → 43.9
 - 對말레이시아 수입 규모는 연료 에너지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3년간 17.3%에 육박하는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 인도네시아의 수입 대상국 4위로 등극
 - * 최근 3개년 對말련 수입 강세 품목 (CAGR %) : 연료 에너지(44), 곡물(25), 조제사료(17)
 -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의 對미국 수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최근 3년 CAGR 7.9%), 말레이시아 및 한국의 성장세에 밀려 2022년 6위 수입 대상국에 위치
 - * 최근 3개년 對미국 수입 강세 품목 (CAGR %) : 연료 에너지(27), 유기화합물(27), 자동차·부품(13)
 - 한국은 2011년과 2014년에 수입 대상국 4위 등극 후 5위~7위권 유지하는 등 20년간 인도네시아의 수입 대상국 상위권(4위~9위)에 위치
 - * 한국 순위 : ('03~'10) 6~9위 → ('11) 4위 → ('12~'13) 5위 → ('14) 4위 → ('15~'22) 5~7위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위	중국(455)	중국(449)	중국(396)	중국(562)	중국(677)
2위	싱가포르(214)	싱가포르(176)	싱가포르(123)	싱가포르(155)	싱가포르(194)
3위	일본(180)	일본(157)	일본(107)	일본(146)	일본(172)
4위	태국(110)	태국(95)	미국(86)	미국(112)	말레이시아(125)
5위	미국(102)	미국(93)	말레이시아(69)	말레이시아(95)	한국(117)
6위	한국(91)	한국(84)	한국(68)	한국(94)	미국(116)
7위	말레이시아(86)	말레이시아(78)	태국(65)	호주(94)	태국(110)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최근 3년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 연평균성장률(CAGR)(단위 : %) >

구분	對세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전체	11.7	11.7	14.7	4.3	3.2
주요 강세 품목	연료 에너지 24	유기화합물 21	연료 에너지 56	귀석·귀금속 18	화학생산품 24
	조제사료 20	철강 제품 20	화학생산품 27	연료 에너지 8	철강 13
	화학생산품 15	전자기기 20	자동차·부품 24	화학생산품 5	고무·제품 9

* 주요 강세 품목 : 상대국별 최근 3년 수입 규모 상위 10개 품목 중 성장률 순으로 추출

** 자료 : S&P Global Trade Atlas

나. 외국인 직접투자(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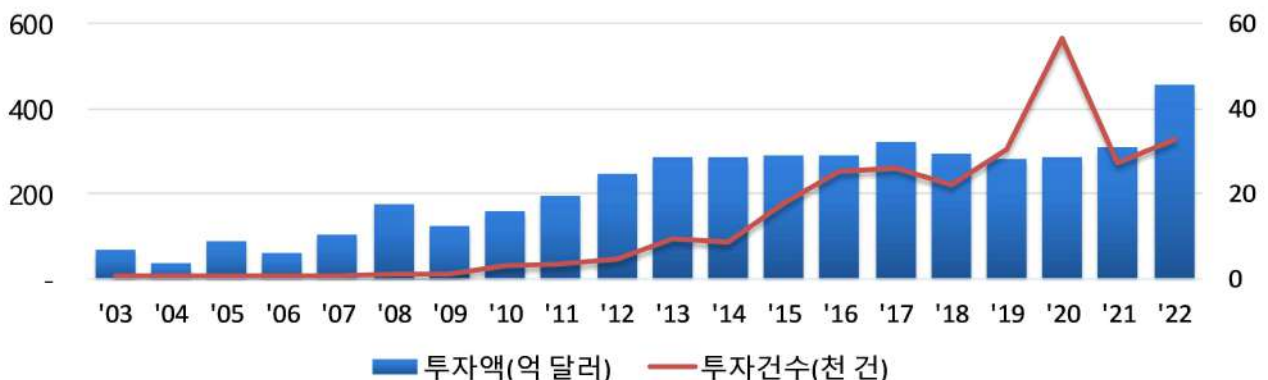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FDI 동향

- 2010년대 초반 투자액 급성장 이후 프로젝트 다변화 노력
 - 글로벌 금융위기('08) 이후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년부터 2013년 4개년 동안 연평균 2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 '10~'13년 투자액 상위 국가(억 달러) : 싱가포르(202), 일본(94), 미국(61), 한국(57) 순
 - 이후 8년 동안(2014~2021년) 인도네시아 FDI 투자액은 연간 300억 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투자 건수는 약 3.1배 수준으로 증가
 - * '14~'21년 투자 건수 상위 국가(천 건) : 싱가포르(50), 일본(29), 한국(23), 중국(14) 순
- 2022년 FDI 투자액은 전년 대비 47%(145억 달러)가 증가한 456억 달러(역대 최대 투자유치액)를 기록하며 對인도네시아 투자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중
 - 투자액 증가 상위 국가는 중국 51억 달러(160%), 싱가포르 39억 달러(41%), 말련 20억 달러(145%), 일본 13억 달러(57%), 홍콩 9억 달러(20%), 한국 7억 달러(40%) 순
 - * 투자증가액 기준 순서로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

< 인도네시아 FDI 추이(단위 : 억 달러, 건)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자액	69	39	90	61	104	176	126	162	195	246
건수	612	609	927	895	1,002	1,148	1,244	3,069	3,614	4,579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액	286	285	293	290	322	293	282	287	311	456
건수	9,611	8,885	17,738	25,321	26,257	21,972	30,354	56,726	27,271	32,681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

□ 최근 FDI 집중 분야 및 국가

- 금속업 분야는 2022년 對인도네시아 FDI의 약 1/4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며 최근 5개년 평균 3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기록 중
 - 금속업 분야 전체 투자 중 홍콩, 싱가포르, 중국 투자가 93%를 차지
 - * 5개년 금속업 FDI(억 달러) : 홍콩(103), 싱가포르(86), 중국(86), 일본(6), 대만(4) 순
 - 또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등 국가 정책에 힘입어 물류·통신업과 화학·제약업의 연평균성장률 각 17%, 12%를 기록하며 지속 성장 추세
 - * 5개년 물류·통신업 FDI(억 달러) : 중국(67), 싱가포르(60), 말련(29), 네덜란드(18), 마셜제도(5) 순
 - * 5개년 화학·제약업 FDI(억 달러) : 싱가포르(27), 말련(22), 중국(16), 일본(11), 태국(9) 순

< 인도네시아 FDI 주요 분야(단위 : 억 달러,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금속업	22	8	36	13	60	21	70	22	110	24
전기·가스·수도	44	15	59	21	46	16	29	9	38	8
물류·통신업	30	10	47	17	36	12	32	10	41	9
광업	30	10	23	8	20	7	38	12	51	11
부동산경영업	43	15	29	10	22	8	22	7	30	7
화학·제약업	19	7	15	5	17	6	17	5	45	10
식품업	13	4	13	5	16	6	23	8	24	5
농축산업	17	6	9	3	12	4	10	3	18	4
차량·운송장비업	10	3	8	3	9	3	15	5	15	3
기타	64	22	44	16	48	17	56	18	84	18
합계	293	100	282	100	287	100	311	100	456	100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

-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등 상위 4개국이 전체 FDI의 2/3를 차지
 - 한국은 인도네시아 전체 FDI의 5%를 차지하며 △차량·운송장비업(20%), △전기·가스·수도 공급업(19%), △전자·기계·의료업(11%) 순으로 투자액이 높음

< 對인도네시아 투자 상위 국가(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위	싱가포르(92)	싱가포르(65)	싱가포르(98)	싱가포르(94)	싱가포르(133)
2위	일본(50)	중국(47)	중국(48)	홍콩(46)	중국(82)
3위	중국(24)	일본(43)	홍콩(35)	중국(32)	홍콩(55)
4위	홍콩(20)	홍콩(29)	일본(26)	미국(25)	일본(36)
5위	말레이시아(18)	네덜란드(26)	한국(18)	일본(23)	말레이시아(33)
6위	한국(16)	말레이시아(14)	네덜란드(14)	네덜란드(18)	미국(30)
7위	미국(12)	한국(11)	말레이시아(10)	한국(16)	한국(23)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

- ◆ 인도네시아의 수입 통계 활용, 단계별 조건 분류 등 데이터 기반 분석 시행
- ◆ HS코드 6단위 기준, 對인도네시아 수출 50대 유망품목 도출

제2장 유망품목 분석1)

제1절 유망품목 도출

□ 활용 자료

- S&P Global의 Global Trade Atlas(GTA)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수입 통계 활용

□ 유망품목 도출 절차 및 결과 : 단계별 조건 분류, HS코드 6단위 품목 추출

- ① 인도네시아 5개년 수입 통계 HS코드 6단위 추출
- ② 인도네시아의 5개년 평균 경제성장률(CAGR 3.389%)보다 높은 △對세계 전체 수입시장 증가와 △對한국 수입 증가를 기록한 HS코드 선정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국가 경제성장률에 따른 성장세가 아닌 실제 시장(품목)의 성장세 고려
- ③ 5개년 對세계 수입액이 5억 달러(연평균 1억 달러) 이상인 HS코드 선정
 -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시장이 형성된 시장(품목) 선정
- ④ 5개년 한국산 수입의 수입시장 점유율(M/S)이 5% 이상인 HS코드 선정
 - 점유율이 낮으면 타국 브랜드의 독과점 시장 등 경쟁 장벽이 높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유한 시장(품목)을 선정
- ⑤ 특정 및 소수 기업에 한정된 품목(DRAM, 탱커 선박 등) 소거, 50대 유망품목 도출

< 유망품목 도출 절차 및 결과 >

단계	분류 조건	HS코드 6단위(건)
①	인도네시아 5개년 수입 통계 HS코드 6단위	5,710
②	경제성장률 ≤ (전체 수입시장 성장률 & 對한국 수입 성장률)	861
③	5개년 對세계 수입액 5억 달러(연평균 1억 달러) 이상	133
④	5개년 한국산 수입 M/S 5% 이상	57
⑤	특정 및 소수 기업 한정 품목 소거	50

1) 2장 내 수치는 별도 표기 없을 시 S&P Global GTA 자료를 활용함

제2절 50대 유망품목

가. 전체 품목 리스트

- 50대 유망품목 분야별 비중은 화학공업(석유화학, 정밀화학, 도료 등)(28%), 기계(28%), 철강·금속(19%), 전기·전자(13%) 순으로 높음

* HS코드와 MTI코드와의 비교로 도출, 일부 HS코드 중복 분야 존재

< 50대 유망품목(HS코드 순)(단위 : 백만 달러, %) >

연번	HS코드	산업/분야	대표 제품	5개년 수입시장	한국산 수입 M/S
1	2106.90	식품	홍삼 음료, 커피 조제품	2,901	9.1
2	2710.19	석유화학, 자동차	윤활유, 휘발유	21,061	14.7
3	2803.00	정밀화학	카본 블랙	1,476	29.1
4	2934.99	정밀화학	농약 원제, 의약품 원료	525	6.1
5	3208.90	도료	페인트, 코팅제	500	16.6
6	3304.99	화장품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1,142	16.2
7	3808.92	정밀화학	농약 원제, 살균제	697	14.4
8	3901.90	합성수지	폴리에틸렌(PE)	882	7.9
9	3902.30	합성수지	폴리프로필렌(PP)	2,579	23.7
10	3906.90	합성수지	아크릴 중합체	1,259	8.1
11	3907.30	합성수지	에폭시 수지	544	25.8
12	3907.40	합성수지	폴리카보네이트(PC)	798	16.4
13	3909.50	합성수지	폴리우레탄(PU)	874	16.0
14	3910.00	합성수지	실리콘수지	571	7.2
15	4819.20	패키징	포장용 상자	511	6.9
16	6004.10	섬유	탄성 섬유	1,881	20.8
17	6006.32	섬유	합성 섬유	967	18.6
18	6006.90	섬유	기타 섬유	559	19.2
19	6406.20	생활용품	신발 부분품	550	9.3
20	6902.10	건설	내화 벽돌·타일	592	7.0
21	7208.51	철강소재	비합금강 평판 압연	759	7.4
22	7210.70	철강소재	클래드 강	1,323	14.9

연번	HS코드	산업/분야	대표 제품	5개년 수입시장	한국산 수입 M/S
23	7213.91	철강소재	비합금강 봉	616	10.4
24	7225.50	철강소재	합금강 평판 압연	2,117	10.4
25	7225.92	철강소재	합금강 평판 압연(아연)	666	8.9
26	7228.30	철강소재	합금강 봉	1,439	12.5
27	7305.11	철강소재	철강 관	611	6.1
28	7326.90	철강소재, 산업기계	보빈, 철강 제품	861	6.0
29	7601.20	철강소재	알루미늄 합금	2,180	6.8
30	7606.12	철강소재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1,313	15.7
31	8402.90	산업기계	열교환기, 과열수 보일러	1,002	17.2
32	8413.70	산업기계	터빈펌프, 볼류트펌프	1,473	7.3
33	8413.81	산업기계	유압공급장치, 배수펌프	541	22.9
34	8419.90	산업기계	물 가열기, 증류기	758	5.0
35	8421.21	산업기계, 정밀기계	물 여과기, 청정기	844	7.0
36	8421.31	산업기계, 자동차	내연기관 공기 여과기	504	18.8
37	8428.33	산업기계	컨베이어 벨트, 엘리베이터	676	5.2
38	8428.90	산업기계, 중장비	유압 리프트, 적하 기계	533	11.2
39	8429.52	중장비	굴착기	5,017	10.3
40	8431.49	중장비	유압 브레이커, 무한궤도 트랙	3,326	7.1
41	8477.90	산업기계	고무 사출성형기 부품	517	6.0
42	8479.89	산업기계	프레스, 코팅기	1,854	8.0
43	8479.90	산업기계	금속처리기 부품	801	6.2
44	8481.80	산업기계	배관 밸브, 유체제어기	3,432	5.3
45	8534.00	전기·전자	인쇄회로	2,018	7.4
46	8537.20	전기·전자	변압기, 고압배전반	805	7.4
47	8542.31	전기·전자	프로세서, 변환기	2,422	24.8
48	8542.90	전기·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모듈	5,746	8.1
49	8543.70	전기·전자	고주파증폭기, 오디오	691	8.1
50	8544.42	전기·전자	와이어하네스, 절연전선	716	9.0

나. 품목별 세부 분석 : HS코드 순

2106.90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기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對 한 국	금액	501		493		495		630		783		2,901
		증감률	19.7%		△1.6%		0.5%		27.2%		24.2%		13.4% (CAGR)
		금액	49		47		42		59		68		265
		증감률	2.0%		△5.0%		△9.1%		39.9%		14.9%		7.2% (CAGR)
	M/S	9.8% / 5위		9.5% / 5위		8.6% / 5위		9.4% / 5위		8.7% / 6위		9.1% / 5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말레이시아		85	3위	69	2위	65	3위	82	3위	125	1위	12.7%
	중국		89	2위	64	3위	55	4위	64	4위	120	2위	14.9%
	싱가포르		53	4위	60	4위	69	2위	88	2위	109	3위	20.2%
	미국		91	1위	91	1위	95	1위	116	1위	106	4위	5.3%
	태국		29	6위	32	6위	33	6위	39	7위	87	5위	31.3%
용도	·홍삼·인삼 제품, 커피 조제품, 음료 베이스, 당 시럽 등												

-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성장세이며 한국산 수입 점유율 8~9%대 유지 중
- 태국, 싱가포르, 중국의 성장세가 높은 편으로, 특히 對태국 수입액은 2022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며 한국을 제치고 5대 수입 대상국으로 등극
- 1위를 유지하던 미국은 2022년에 4위권으로 밀렸으며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가 3대 수입국으로 기록됨

2710.19 | 석유와 역청유 : 기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對 한 국	금액	6,062		3,424		2,169		3,059		6,348		21,061	
		증감률	24.9%		△43.5%		△36.7%		41.0%		107.5%		5.5% (CAGR)	
		금액	576		495		272		393		1,361		3,097	
		증감률	0.5%		△14.0%		△45.1%		44.7%		245.9%		18.9% (CAGR)	
	M/S	9.5% / 3위		14.5% / 3위		12.5% / 3위		12.9% / 3위		21.4% / 3위		14.7% / 3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말레이시아		1,044	2위	803	2위	358	2위	568	2위	2,127	1위	23.0%	
	싱가포르		3,825	1위	1,551	1위	1,098	1위	1,511	1위	1,790	2위	△9.9%	
	중국		157	4위	34	8위	43	6위	34	10위	177	4위	46.4%	
	카타르		136	5위	117	5위	88	4위	127	4위	177	5위	73.0%	
	인도		100	6위	167	4위	26	11위	85	6위	174	6위	5.5%	
용도	·자동차 윤활유, 엔진오일, 등유, 중유 등													

- 전체 수입시장은 2020년 저점 후 회복·성장세로 전환, 한국은 3위권 유지 중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 상위 3국의 83%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2803.00 | 탄소(카본 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 포함)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329		275		172		324		376	1,476
		증감률	29.7%		△16.5%		△37.5%		89.1%		16.0%	8.2% (CAGR)
	대한국	금액	69		69		51		102		139	430
		증감률	13.8%		△0.6%		△26.0%		98.9%		36.8%	17.9%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21.1% / 2위		25.1% / 2위		29.7% / 2위		31.3% / 2위		36.9% / 2위	28.4% / 2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93	1위	139	1위	79	1위	149	1위	155	1위	2.2%
	태국	16	3위	17	3위	10	3위	20	3위	20	3위	3.4%
	대만	9	6위	12	6위	7	5위	13	5위	17	4위	33.8%
용도	인도	12	5위	13	5위	5	6위	12	6위	14	5위	11.2%
	일본	13	4위	13	4위	9	4위	14	4위	14	6위	4.0%
·카본 블랙, 고무·플라스틱 첨가/보강/충진제, 안료, 이차전지 등												

- 연평균 18% 수준의 고성장세와 높은 수입시장 점유율 보유
- 한국은 1위 중국과의 금액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 3위 태국과의 차이가 큰 편이나, 최근 대만의 가파른 성장세(33.8%) 모니터링 필요
- 인니 EV 산업 육성 정책, 글로벌 기업의 현지 진출 등 이차전지 관련 유망

2934.99 | 핵산과 이들의 염,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기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93		80		83		113		156	525
		증감률	△13.1%		△13.8%		3.2%		36.2%		38.5%	7.8% (CAGR)
	대한국	금액	6		8		6		5		7	32
		증감률	27.5%		25.9%		△18.9%		△17.8%		37.7%	8.1%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6.5% / 4위		9.5% / 4위		7.5% / 4위		4.5% / 4위		4.5% / 5위	5.8% / 4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37	1위	31	1위	31	1위	43	2위	72	1위	7.7%
	인도	30	2위	20	2위	24	2위	45	1위	34	2위	3.4%
	미국	0.3	12위	0.2	12위	0.05	19위	1	8위	26	3위	89.6%
용도	일본	13	3위	13	3위	10	3위	9	3위	8	4위	△7.5%
	독일	2	5위	3	5위	1	7위	3	5위	4	6위	△3.2%
·농약 원제, 모르포린, 의약품·화장품 원료, 난연제 등												

- 2022년 금액이 급증기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산 수입 증가율은 준수한 편
- 중국과 인도산 제품의 수입 점유율은 60~70%대에 달하며 중국의 성장률이 인도 대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

3208.90 페인트와 바니시; 기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對 한 국	금액	87		102		83		110		118		500
		증감률	9.2%		17.0%		△18.6%		32.0%		7.9%		8.2% (CAGR)
		금액	14		18		12		18		20		83
		증감률	25.0%		29.8%		△33.5%		50.7%		6.8%		11.7% (CAGR)
	M/S	16.3% / 1위		18.1% / 2위		14.7% / 2위		16.8% / 1위		16.7% / 1위		16.6% / 1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7	6위	9	6위	8	6위	11	5위	17	2위	34.8%
	태국		12	2위	11	3위	10	4위	13	2위	14	3위	7.9%
	싱가포르		7	5위	9	5위	10	3위	10	6위	14	4위	17.5%
	일본		11	4위	10	4위	8	5위	11	4위	10	5위	△1.5%
	스위스		12	3위	19	1위	15	1위	12	3위	8	7위	△15.3%
용도	· 페인트, 코팅제, 첨가제, 접착제 프라이머, 발수제 등												

- 전체 수입시장은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
-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최상위권(1~2위)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34.8%) 및 싱가포르(17.5%)의 가파른 성장세 모니터링 필요

3304.99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기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對 한 국	금액	232		254		195		235		226		1,142
		증감률	50.0%		9.6%		△23.2%		20.2%		△3.8%		7.9% (CAGR)
		금액	25		34		40		52		33		185
		증감률	194.5%		37.3%		17.8%		28.4%		△35.9%		31.4% (CAGR)
	M/S	10.8% / 3위		13.5% / 1위		20.7% / 1위		22.1% / 1위		14.7% / 2위		16.2% / 1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5	8위	21	6위	14	7위	20	5위	59	1위	56.5%	
	태국	16	7위	19	7위	16	3위	22	4위	24	3위	18.9%	
	프랑스	38	1위	28	3위	16	4위	26	2위	24	4위	4.8%	
	미국	28	2위	26	5위	20	2위	26	3위	18	5위	△4.2%	
	일본	23	4위	26	4위	16	6위	20	6위	16	6위	△6.9%	
용도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어린이용 화장품, 마스크팩 등												

- 일반 소비자의 소비문화와 직결되는 소비재(화장품, 뷰티) 품목으로 전통 뷰티 강국인 프랑스, 미국 등을 제치고 한국 등의 수입 비중이 지속 상승 중
- 2019년부터 2021년 3년 동안 한국은 2위 국가와의 차이를 크게 벌리며 수입 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2위를 기록
* '19~'21년 한국과 2위 국가의 금액 차이(백만 달러) : 싱가포르 3 → 미국 20 → 프랑스 26

3808.92 | 살진균제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22		102		119		150		204	697
		증감률	5.3%		△16.2%		16.1%		26.2%		36.6%	12.0% (CAGR)
	대한국	금액	16		9		20		24		31	100
		증감률	3.9%		△42.4%		118.6%		21.5%		29.6%	15.5%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12.9% / 3위		8.9% / 5위		16.7% / 2위		16.1% / 2위		15.3% / 2위	14.4% / 2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37	1위	29	1위	33	1위	45	1위	97	1위	20.1%
	인도	19	2위	13	2위	15	3위	17	3위	21	3위	4.2%
	스페인	6	6위	9	3위	8	5위	13	4위	13	4위	16.7%
용도	독일	9	4위	9	4위	7	6위	7	7위	9	5위	14.4%
	싱가포르	8	5위	8	6위	9	4위	10	5위	9	6위	5.6%
·살균제, 항곰팡이제 등 농약 원제												

- 기존 상위권 수입 대상국의 더딘 성장(인도, CAGR 4.2%)을 따라잡으며 인도네시아의 2대 수입 대상국으로 등극
- 반면, 1위 수입 대상국(중국)과의 금액 차이를 줄여오다가 다시 증가한 품목으로 한국 제품의 수출 성장세를 더욱 가속할 전략이 필요한 시기
- * '18~'22년 중국과 한국의 금액 차이(백만 달러) : 21 → 19 → 13 → 21 → 66

3901.90 | 에틸렌의 중합체; 기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58		147		145		207		224	882
		증감률	1.3%		△7.0%		△1.1%		42.5%		8.3%	7.5% (CAGR)
	대한국	금액	16		17		7		15		15	70
		증감률	47.1%		6.7%		△60.3%		120.6%		1.1%	6.8%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10.1% / 3위		11.6% / 3위		4.6% / 8위		7.2% / 5위		6.7% / 6위	7.9% / 5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태국	49	1위	38	1위	36	1위	52	1위	47	1위	△2.3%
	사우디	7	7위	2	12위	16	4위	31	2위	29	2위	46.0%
	중국	10	6위	13	5위	9	6위	12	6위	22	3위	23.2%
용도	일본	24	2위	21	2위	16	3위	20	4위	21	4위	△1.0%
	대만	6	8위	8	7위	7	7위	22	3위	20	5위	38.6%
·건축자재·전자기기·자동차 플라스틱 제조용 등 산업 전반												

- 시장의 성장률(7.5%) 대비 한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율(6.8%)이 낮은 품목
- 수입 점유율 1위는 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대만 제품의 점유율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며 차상위권을 구성하는 국가는 매년 바뀌는 중

3902.30 | 프로필렌 공중합체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對 한 국	금액	520		501		379		586		594		2,579
		증감률	8.9%		△3.6%		△24.4%		54.6%		1.5%		4.5% (CAGR)
		금액	109		110		94		141		156		610
		증감률	24.7%		1.4%		△14.8%		50.4%		9.9%		12.2% (CAGR)
	M/S	20.9% / 2위		22.0% / 2위		24.8% / 2위		24.2% / 2위		26.2% / 2위		23.7% / 2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싱가포르		248	1위	239	1위	187	1위	260	1위	261	1위	0.2%
	태국		75	3위	66	3위	40	3위	80	3위	79	3위	7.6%
	말레이시아		39	4위	44	4위	21	4위	35	4위	31	4위	0.3%
	UAE		16	5위	13	5위	11	5위	11	6위	20	5위	6.5%
	베트남		0.01	23위	0.03	22위	-	-	19	5위	15	6위	NA
용도	·플라스틱 제조용 기초소재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UAE 등 5개국
- 상위권 국가 중 한국의 성장률이 12.2%로 가장 높고 점유율 1위인 싱가포르와의 차이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으나, 여전히 금액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
- * '18~'22년 싱가포르와 한국의 금액 차이(백만 달러) : 139 → 129 → 93 → 118 → 106

3906.90 | 아크릴의 중합체; 기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對 한 국	금액	226		230		210		282		311		1,259
		증감률	23.9%		2.0%		△8.8%		34.2%		10.4%		11.3% (CAGR)
		금액	13		14		13		25		36		102
		증감률	27.8%		4.4%		△4.4%		88.7%		42.1%		27.9% (CAGR)
	M/S	5.9% / 5위		6.1% / 5위		6.4% / 6위		9.0% / 3위		11.5% / 2위		8.1% / 4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66	1위	75	1위	70	1위	98	1위	127	1위	23.4%
	일본		22	3위	22	4위	15	5위	21	5위	31	3위	8.5%
	태국		20	4위	23	2위	19	2위	27	2위	22	4위	10.9%
	말레이시아		11	7위	13	6위	16	4위	24	4위	17	5위	10.8%
	싱가포르		25	2위	22	3위	19	3위	19	6위	15	6위	△9.1%
용도	·코팅제, 발수·발유제, 도료·접착제, 장식물 등 산업 전반 기초소재												

- 전체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 11.3%를 기록 중이며 이 중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1/3 이상을 차지
- 한국산 제품은 연평균 27.9% 고성장하였으며,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 규모가 급증가하며 2대 수입 대상국으로 등극

3907.30 | 에폭시 수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04		98		83		139		119	544
		증감률	8.5%		△5.6%		△15.1%		66.6%		△14.0%	4.5% (CAGR)
	대한국	금액	27		23		19		40		30	140
		증감률	46.2%		△14.2%		△16.6%		107.2%		△24.5%	10.4%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26.1% / 1위		23.7% / 1위		23.2% / 1위		28.9% / 1위		25.4% / 1위	25.8% / 1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일본	21	2위	21	2위	15	2위	23	2위	18	2위	△7.3%
	싱가포르	6	5위	13	4위	14	3위	15	4위	14	3위	24.6%
	대만	9	4위	8	5위	6	5위	14	5위	14	4위	14.2%
용도	태국	16	3위	14	3위	11	4위	19	3위	12	5위	△3.7%
	중국	6	6위	5	6위	4	6위	9	6위	11	6위	4.1%
·표면 도포·접착제·성형용·주조용 수지 등												

- 한국산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입 점유율과 연평균성장률은 각 25%, 10% 전후로 최근 수출 성적이 우수한 품목
- 수입 점유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싱가포르, 대만 등 고성장세를 보이는 차상위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3907.40 | 폴리카보네이트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71		135		93		186		212	798
		증감률	42.8%		△21.0%		△30.9%		98.6%		14.0%	12.0% (CAGR)
	대한국	금액	19		18		17		39		38	131
		증감률	36.1%		△3.1%		△8.0%		129.7%		△3.1%	22.0%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11.1% / 3위		13.6% / 3위		18.1% / 2위		20.9% / 3위		17.8% / 3위	16.4%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태국	55	1위	44	1위	25	1위	46	1위	59	1위	3.5%
	중국	18	4위	13	4위	12	4위	46	2위	49	2위	28.3%
	일본	36	2위	20	2위	16	3위	22	4위	21	4위	△0.8%
용도	사우디	4	8위	12	5위	4	7위	6	6위	11	5위	41.1%
	싱가포르	13	6위	11	6위	3	8위	5	8위	9	6위	17.1%
·성형 제조품, 유약 원료, 내화제, 플라스틱 원료 등												

- 전체 수입시장은 2020년을 중심으로 하는 V자형 연평균 12% 성장세를 기록
- 기존 2대 수입국이던 일본의 자리를 중국이 대체하고 있으며 태국·중국·한국 3국 간의 인도네시아 수입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하는 추세
- * '18~'22년 태국, 중국,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 : 54 → 56 → 58 → 71 → 69

3909.50 | 폴리우레탄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62		163		139		189		220		874
		증감률	21.6%		0.4%		△14.3%		35.8%		16.4%		10.6% (CAGR)
	대한국	금액	20		26		25		36		32		140
		증감률	16.6%		27.2%		△1.9%		41.9%		△11.1%		12.9% (CAGR)
	M/S	12.6% / 3위		16.0% / 2위		18.3% / 1위		19.1% / 2위		14.6% / 2위		16.0% / 2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38	1위	32	1위	25	2위	42	1위	65	1위	14.5%
	대만		23	2위	25	3위	20	3위	25	3위	25	3위	2.9%
	베트남		4	10위	6	10위	5	10위	12	6위	17	4위	38.9%
	인도		10	7위	11	5위	10	5위	13	4위	16	5위	23.1%
	싱가포르		13	5위	12	4위	11	4위	13	5위	14	6위	8.7%
용도	· 합성피혁, 바닥 처리제, 가교제, 접착제, 플라스틱 원료 등												

- 한국 등 일부 주요국 대상 수입 증가율이 전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14.5%), 베트남(38.9%), 인도(23.1%)의 성장률이 한국(12.9%)보다 높은 편
- 특히, 베트남의 글로벌 생산기지 부상에 따라 對베트남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3910.00 | 실리콘수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대한국	금액	110		97		81		120		164		571
		증감률	28.9%		△11.6%		△16.6%		49.0%		36.3%		14.1% (CAGR)
		금액	8		7		7		11		10		41
		증감률	10.3%		△11.2%		△1.6%		61.6%		△6.6%		7.8% (CAGR)
	M/S	6.9% / 6위		6.9% / 6위		8.2% / 6위		8.9% / 5위		6.1% / 7위		7.2% / 6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27	1위	22	1위	19	1위	37	1위	54	1위	25.7%
	독일		13	5위	12	4위	13	2위	14	2위	17	2위	7.2%
	태국		15	3위	11	5위	9	4위	13	3위	16	3위	7.3%
	일본		19	2위	16	2위	10	3위	11	4위	16	4위	8.3%
	인도		4	7위	4	7위	4	8위	4	9위	13	5위	15.9%
	미국		14	4위	14	3위	8	5위	8	6위	12	6위	△1.5%
용도	· 윤활제, 기포 방지제, 방수 도포제, 실리콘고무, 반도체 제조용 등												

- 전체 수입시장은 V자형 추세로 연평균 14.1%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18~'22년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 25 → 23 → 23 → 31 → 33
- 한국 제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8% 증가하였으나, 타 국가 및 전체 시장 성장 대비 증가율이 낮아 인도네시아의 수입 대상국 6위권 전후에 머무는 중

4819.2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 제외)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00		90		87		107		126	511
		증감률	9.2%		△9.8%		△3.0%		22.9%		17.5%	6.6% (CAGR)
	대한국	금액	6		5		6		8		10	35
		증감률	△27.1%		△9.6%		8.1%		43.8%		21.8%	4.5%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5.9% / 5위		5.9% / 4위		6.6% / 4위		7.7% / 3위		8.0% / 3위	6.9% / 4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32	1위	34	1위	28	1위	37	1위	48	1위	7.9%
	태국	25	2위	26	2위	24	2위	31	2위	37	2위	17.9%
	싱가포르	12	3위	6	3위	8	3위	8	4위	7	4위	△11.6%
용도	대만	4	6위	5	5위	4	6위	4	7위	5	5위	10.0%
	베트남	7	4위	3	8위	2	9위	5	5위	4	6위	△10.7%
·포장용 상자												

- 상위 2개국(중국, 태국)의 점유율이 60%를 웃도는 과점시장의 특징 보유
* '18~'22년 중국, 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 : 57 → 66 → 59 → 64 → 68
- 최근 3년간 고성장세를 보이는 對한국 수입 증가 모멘텀 유지 필요
* '20~'22년 주요국 수입 CAGR(%) : 한국 23.7, 중국 12.9, 태국 12.7

6004.10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탄성사 함유 중량 5% 이상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303		359		310		455		454	1,881
		증감률	70.1%		18.3%		△13.4%		46.6%		△0.2%	20.6% (CAGR)
	대한국	금액	78		91		74		74		75	392
		증감률	39.9%		15.8%		△18.8%		1.1%		0.9%	6.0%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25.8% / 2위		25.3% / 2위		23.7% / 2위		16.3% / 2위		16.5% / 2위	20.8% / 2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29	1위	152	1위	133	1위	210	1위	193	1위	25.0%
	홍콩	34	3위	46	3위	42	3위	64	3위	66	3위	28.3%
	베트남	24	5위	27	5위	21	5위	47	4위	55	4위	31.9%
용도	대만	26	4위	30	4위	24	4위	41	5위	35	5위	15.1%
	태국	7	6위	6	6위	6	6위	6	6위	8	6위	6.0%
·스포츠웨어, 기능성 의류 등												

- 전체 수입시장과 중국 등 타 경쟁국은 두 자리 숫자 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중
- 한국산 제품은 수입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홍콩, 베트남, 대만 등의 급성장세로 금액 차이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

6006.32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합성섬유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70		212		153		217		216	967
		증감률	13.3%		24.4%		△27.7%		41.7%		△0.3%	7.6% (CAGR)
	對한국	금액	36		42		32		35		36	179
		증감률	18.9%		16.2%		△23.5%		9.6%		2.6%	3.5%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21.0% / 3위		19.6% / 3위		20.8% / 3위		16.1% / 3위		16.5% / 3위	18.6%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48	1위	60	1위	43	1위	75	1위	72	1위	14.0%
	대만	45	2위	44	2위	39	2위	43	2위	55	2위	2.6%
	베트남	12	5위	28	4위	18	4위	33	4위	28	4위	35.0%
용도	일본	12	4위	16	5위	7	5위	9	6위	10	5위	1.4%
	홍콩	9	6위	9	6위	7	6위	11	5위	6	6위	△4.3%
· 신발, 의류, 섬유 공업 등												

- 중국, 대만, 한국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의 약 3/4을 차지
* '18~'22년 중국, 대만,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 : 76 → 69 → 74 → 71 → 75
- 한국은 점유율 3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위 대만과의 금액 차이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베트남의 급성장세(35.0%)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18~'22년 대만과 한국과의 금액 차이(백만 달러) : 9 → 2 → 7 → 8 → 19

6006.90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기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99		96		98		148		118	559
		증감률	45.9%		△3.1%		2.4%		50.4%		△20.4%	11.6% (CAGR)
	對한국	금액	17		25		21		26		18	107
		증감률	103.9%		49.6%		△17.4%		26.5%		△29.7%	17.5%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16.9% / 4위		26.1% / 2위		21.1% / 2위		17.7% / 2위		15.7% / 3위	19.2%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31	1위	31	1위	42	1위	82	1위	44	1위	12.5%
	대만	22	2위	23	3위	19	3위	23	3위	28	2위	12.7%
	베트남	4	5위	9	4위	8	4위	9	4위	14	4위	42.9%
용도	홍콩	18	3위	6	5위	6	5위	4	5위	5	5위	△11.0%
	싱가포르	1	8위	0.1	8위	0.04	18위	0.04	17위	4	6위	86.4%
· 신발, 의류, 섬유 공업 등												

- 전체 수입시장은 일부 변동성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우상향 성장세(11.6%)
- 對한국 수입 증가율(17.5%)이 중국과 대만의 증가율(12.5%, 12.7%)보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으나, 4위 베트남의 성장세(42.9%) 모니터링 필요

6406.20 신발류 부분품; 바깥 바닥과 뒷굽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금액	93		99		83		123		151		550
		증감률	41.4%		6.7%		△16.4%		47.5%		23.5%		18.1% (CAGR)
	對 한 국	금액	7		8		7		13		16		51
		증감률	64.5%		2.9%		△14.0%		104.8%		20.3%		29.1%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29	2위	32	1위	28	1위	41	1위	51	1위	12.3%
	베트남		32	1위	28	2위	21	2위	21	3위	42	2위	15.9%
	미국		14	3위	21	3위	19	3위	34	2위	30	3위	69.8%
	태국		1	7위	2	6위	2	6위	5	5위	7	5위	65.8%
	일본		1	10위	1	9위	0.3	10위	1	10위	1	6위	16.3%
용도		· 신발 부분품											

- 팬데믹 시기에 시장이 위축하였으나, 그 이후 회복세 전환에 성공하여 높은 성장률(18.1%)을 보이는 품목
-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상위 3개국의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과점시장
* '18~'22년 중국, 베트남,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 : 80 → 81 → 83 → 78 → 81

6902.10 내화 벽돌·블록·타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 함유량 50% 초과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금액	101		90		79		135		187		592
		증감률	115.8%		△10.7%		△11.9%		70.4%		38.5%		32.0% (CAGR)
	對 한 국	금액	8		10		8		7		9		42
		증감률	31.6%		24.7%		△18.3%		△5.5%		17.6%		8.3%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71	1위	71	1위	59	1위	114	1위	164	1위	41.5%
	태국		6	3위	5	3위	3	3위	3	4위	7	3위	20.7%
	프랑스		3	5위	0.5	8위	3	4위	0.1	11위	4	4위	65.6%
	일본		2	7위	0.5	9위	2	5위	0.2	10위	2	5위	28.2%
	인도		0.4	10위	1	6위	0.3	10위	1	6위	1	6위	△9.3%
용도		· 야금·화학·도자·유리 공업용 내화 제품											

- 중국의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품목으로 한국은 2위 지위를 유지 중
- 전체 수입시장의 성장률(32.0%)과 중국, 태국, 프랑스 등 경쟁국의 수입 성장(20.7~65.6%) 대비 한국 수입 성장(8.3%)의 차이에 따른 수출 확대 가속화 필요

7208.51 | 열간압연된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클래드·도금·도포 제외); 두께 10mm 초과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22		218		100		72		246		759
		증감률	87.0%		78.8%		△54.1%		△27.6%		240.1%		30.5% (CAGR)
	대한국	금액	9		12		14		6		14		56
		증감률	193.7%		36.7%		18.9%		△57.6%		135.6%		36.6%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7.3% / 4위		5.6% / 4위		14.4% / 3위		8.4% / 3위		5.9% / 4위		7.4% / 5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일본		46	1위	49	2위	29	2위	37	1위	116	1위	38.7%
	중국		7	5위	9	5위	5	5위	5	4위	67	2위	63.7%
	싱가포르		25	3위	97	1위	39	1위	18	2위	38	3위	12.4%
	영국		0.2	9위	0.2	10위	0.1	15위	0.02	12위	5	5위	NA
용도	우크라이나		32	2위	44	3위	8	4위	1	7위	2	6위	△26.0%
	·자동차, 중장비, 건설기자재, 기계 등 산업 전반												

- 전체 수입시장은 2020~2021년 부진하였으나 2022년 회복세 전환에 성공, 약 2.5억 달러 수입 기록
- 한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율은 높은 편이나, 절댓값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3개국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 중

7210.70 | 페인팅·바니시·플라스틱 도포된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클래드·도금·도포 한정)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83		242		263		323		312		1,323
		증감률	8.0%		32.1%		8.7%		22.7%		△3.2%		13.0% (CAGR)
	대한국	금액	24		25		32		56		60		197
		증감률	28.3%		1.4%		28.5%		76.4%		7.7%		26.0%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13.3% / 3위		10.2% / 3위		12.1% / 3위		17.4% / 2위		19.3% / 2위		14.9%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95	1위	161	1위	191	1위	235	1위	212	1위	22.1%
	베트남		53	2위	44	2위	33	2위	24	3위	30	3위	△13.6%
	태국		6	4위	8	4위	5	4위	6	4위	6	4위	△0.2%
	말레이시아		2	6위	2	5위	1	5위	1	5위	2	5위	△0.9%
용도	홍콩		1	7위	1	6위	1	7위	0.003	9위	1	6위	NA
	·자동차, 중장비, 건설기자재, 기계 등 산업 전반												

- 전체 수입시장은 높은 성장률(13.0%)을 보이고 있으나, 1위 중국의 비중 및 규모가 전반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
- 한국 수입 증가율(26.0%)은 타 경쟁국 대비 높은 편으로 2021년부터 중국에 이어 2대 수입 대상국으로 등극함

7213.91 열간압연된 철·비합금강 봉; 횡단면 14mm 미만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금액	82		129		91		116		197	616
	체	증감률	77.5%		57.0%		△29.6%		27.6%		70.3%	33.6% (CAGR)
	對	금액	6		8		9		21		20	64
	한	증감률	11.7%		20.7%		17.1%		135.9%		△7.8%	28.0%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국	M/S	7.8% / 5위		6.0% / 6위		9.9% / 4위		18.4% / 2위		9.9% / 3위	10.4% / 4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2	7위	27	2위	10	3위	18	3위	96	1위	157.2%
	일본	32	1위	21	3위	22	2위	41	1위	47	2위	13.7%
	태국	8	3위	10	5위	9	5위	15	4위	16	4위	41.3%
용도	대만	8	4위	7	7위	4	7위	8	5위	10	5위	8.1%
	베트남	20	2위	12	4위	6	6위	4	7위	7	6위	11.5%
·자동차, 중장비, 건설기자재, 기계 등 산업 전반												

- 5년 평균 성장률 33.6%를 기록하며 매우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있는 품목
- 2022년 중국산 수입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며 점유율 1위에 등극

7225.50 그 밖의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금액	423		393		189		447		665	2,117
	체	증감률	50.9%		△7.0%		△52.0%		136.8%		48.6%	18.9% (CAGR)
	對	금액	45		41		24		36		75	221
	한	증감률	36.4%		△7.9%		△41.9%		48.1%		110.4%	17.9%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국	M/S	10.6% / 3위		10.5% / 3위		12.7% / 3위		8.0% / 3위		11.3% / 2위	10.4%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일본	247	1위	238	1위	127	1위	322	1위	511	1위	23.9%
	중국	97	2위	99	2위	27	2위	73	2위	65	3위	14.6%
	대만	29	4위	14	4위	9	4위	16	4위	14	4위	△12.2%
용도	튀르키예	0.4	7위	0.01	7위	1	5위	1	5위	0.3	5위	△11.5%
	독일	1	6위	0.2	6위	-	-	-	-	-	-	NA
·자동차, 중장비, 건설기자재, 기계 등 산업 전반												

- 특히 상위 3개국(일본,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전체 수입시장 규모 증가 중
- 2022년 수입 대상국은 5개국에 불과했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
- * '18~'22년 일본의 수입시장 점유율(%) : 58 → 61 → 67 → 72 → 77

7225.92 | 그 밖의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아연을 도금·도포한 것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28		117		63		165		193	666
		증감률	57.3%		△8.0%		△46.5%		163.4%		16.6%	18.9% (CAGR)
	대한국	금액	2		3		10		20		23	59
		증감률	424.6%		29.5%		223.2%		104.2%		13.8%	119.6%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1.9% / 4위		2.6% / 3위		15.9% / 2위		12.3% / 2위		12.0% / 2위	8.9%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99	1위	96	1위	46	1위	130	1위	153	1위	25.8%
	일본	18	2위	12	2위	5	3위	11	3위	14	3위	△13.6%
	대만	1	8위	1	6위	1	4위	2	4위	2	4위	46.7%
용도	태국	4	3위	2	4위	0.4	5위	1	6위	0.4	5위	△29.8%
	베트남	1	5위	2	5위	0.05	6위	1	5위	0.3	6위	NA
·자동차, 중장비, 건설기자재, 기계 등 산업 전반												

- 연간 수입 시장 규모는 1억 달러를 웃도나,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의 점유율이 99%에 이르는 등 실질적 수입 대상국 수는 제한적인 편
- 한국산 제품 수입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태국, 일본 등을 제치며 수입 점유율 2위로 등극하였으나 1위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편

7228.30 | 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봉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299		297		155		308		379	1,439
		증감률	28.8%		△0.8%		△47.9%		99.3%		23.0%	10.3% (CAGR)
	대한국	금액	40		38		23		39		40	180
		증감률	37.8%		△5.5%		△38.9%		69.8%		2.4%	6.7%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13.3% / 3위		12.7% / 3위		14.9% / 3위		12.7% / 3위		10.6% / 3위	12.5%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30	1위	141	1위	77	1위	157	1위	206	1위	19.3%
	일본	99	2위	105	2위	45	2위	99	2위	121	2위	3.9%
	인도	2	6위	1	7위	0	9위	2	6위	3	4위	31.3%
용도	이탈리아	1	9위	1	6위	1	7위	1	7위	3	5위	26.0%
	대만	5	5위	4	4위	2	5위	3	5위	1	7위	△20.8%
·자동차, 중장비, 건설기자재, 기계 등 산업 전반												

- 전체 수입시장은 2020년을 중심으로 V자형 연평균 10.3% 성장률을 기록
- 중국산 제품이 약 절반의 점유율 차지하며 뒤이어 일본, 한국 순으로 수입 규모가 큼

7305.11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39		78		77		32		385	611
		증감률	40.5%		99.1%		△2.3%		△58.6%		1113.8%	68.8% (CAGR)
	대한국	금액	14		5		9		1		8	37
		증감률	699.9%		△61.3%		68.0%		△83.3%		446.6%	36.6%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34.7% / 2위		6.7% / 4위		11.6% / 3위		4.7% / 3위		2.1% / 3위	6.1%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독일	0.03	7위	0.03	8위	1	6위	0.4	5위	345	1위	NA
	일본	25	1위	28	2위	47	1위	21	1위	27	2위	13.3%
	싱가포르	0.04	6위	10	3위	11	2위	0.00	10위	1	4위	△29.4%
용도	중국	0.4	4위	1	7위	3	5위	1	4위	1	6위	46.5%
	인도	0.03	8위	32	1위	0.2	8위	-	-	1	7위	NA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 2022년 수입액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는 독일 수입에 의한 것으로, 독일 제외 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음
- 파이프라인 설립 시 사용되는 제품으로 누산타라 신수도 이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연계된 수입 증가 가능성 존재

7326.90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기타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57		179		131		172		222	861
		증감률	44.1%		13.7%		△26.7%		31.7%		28.5%	15.2% (CAGR)
	대한국	금액	5		11		8		7		21	52
		증감률	62.1%		138.9%		△30.3%		△17.6%		222.8%	48.3%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3.0% / 7위		6.4% / 6위		6.1% / 6위		3.8% / 7위		9.5% / 4위	6.0% / 5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39	1위	46	1위	34	1위	52	1위	68	1위	37.7%
	일본	38	2위	36	2위	24	2위	30	2위	29	2위	1.8%
	싱가포르	25	3위	24	3위	18	3위	10	4위	26	3위	3.7%
용도	독일	4	9위	3	9위	4	7위	3	11위	12	5위	6.3%
	미국	8	6위	9	7위	12	4위	9	6위	11	6위	△12.8%
·자동차, 중장비, 건설기자재, 기계 등 산업 전반												

- 2022년 연간 수입 시장 규모가 2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평균 15.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품목
- 한국산 제품 수입이 2022년 급증하며 점유율 4위로 등극하며 2·3위와의 수입 금액 차이가 좁아진 상황

7601.20 | 알루미늄의 과; 알루미늄 합금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금액	476		415		285		477		528	2,180
	체	증감률	8.4%		△12.7%		△31.5%		67.5%		10.8%	3.8% (CAGR)
	對	금액	18		31		20		37		41	149
	한	증감률	△10.0%		73.2%		△34.8%		83.9%		10.6%	15.6%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국	M/S	3.8%/ 8위		7.5%/ 5위		7.2%/ 5위		7.9%/ 5위		7.8%/ 5위	6.8%/ 6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UAE	86	1위	73	1위	44	2위	79	2위	122	1위	11.7%
	말레이시아	68	3위	60	2위	45	1위	96	1위	90	2위	8.1%
	러시아	70	2위	35	4위	24	4위	46	4위	51	3위	△8.8%
용도	호주	59	4위	37	3위	39	3위	63	3위	46	4위	0.8%
	카타르	40	5위	31	6위	18	6위	29	6위	41	6위	△1.1%
·압연·단조·압출·해머링 또는 성형품 주조용 등												

- 2022년 수입액이 5억 달러를 넘는 등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시장
- 한국은 2019년 5위 등극 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1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

7606.12 | 알루미늄의 판·시트·스트립;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금액	299		244		207		248		315	1,313
	체	증감률	26.2%		△18.4%		△14.9%		19.7%		27.0%	5.9% (CAGR)
	對	금액	42		29		23		55		58	206
	한	증감률	△8.1%		△30.0%		△21.0%		139.0%		5.1%	5.0%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국	M/S	13.9%/ 2위		11.9%/ 2위		11.1%/ 3위		22.1%/ 2위		18.3%/ 2위	15.7%/ 2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86	1위	155	1위	123	1위	158	1위	213	1위	8.7%
	태국	22	3위	23	3위	12	4위	21	3위	29	3위	5.3%
	일본	6	6위	7	5위	4	5위	4	4위	4	4위	△0.5%
용도	독일	3	8위	4	7위	3	7위	1	8위	3	5위	7.3%
	싱가포르	4	7위	4	6위	2	8위	2	6위	3	6위	1.7%
·압연·단조·압출·해머링 또는 성형품 주조용 등												

- 연간 전체 수입 시장 규모는 2~3억 달러 수준으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59~67%로 1위를 차지
 - 한국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한시적으로 증가한 2020년을 제외하고 수입 대상국 2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규모도 꾸준히 성장 추세
- * '18~'22년 인니의 對미국 수입액(백만 달러) : 11 → 1 → 30 → 1 → 1

8402.90 | 과열수 보일러 부분품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금액	326		200		131		106		238	1,002
	체	증감률	222.6%		△38.5%		△34.7%		△18.7%		123.8%	18.7% (CAGR)
	對	금액	71		11		8		2		80	172
	한	증감률	596.0%		△83.9%		△28.2%		△76.9%		4160.9%	51.3%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국	M/S	21.7% / 2위		5.7% / 4위		6.2% / 2위		1.8% / 6위		33.7% / 2위	17.2% / 2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89	1위	112	1위	92	1위	86	1위	119	1위	17.6%
	말레이시아	5	9위	4	7위	5	4위	4	2위	9	3위	15.5%
	독일	7	8위	3	8위	1	11위	1	9위	4	5위	19.0%
용도	인도	53	4위	28	2위	7	3위	3	5위	4	6위	△21.0%
	일본	61	3위	24	3위	2	8위	2	7위	3	8위	△15.8%
· 열교환기, 과열수 보일러 등 산업용 보일러												

- 전체 수입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금액 및 순위 등락이 잦은 편
- 중국을 비롯한 상위 2개국의 수입시장 과점 양상이 심화하는 추세
* '18~'22년 수입 대상 상위 2개국 점유율 합계(%) : 49 → 70 → 76 → 85 → 84

8413.70 | 액체 원심펌프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금액	344		308		214		301		307	1,473
	체	증감률	61.6%		△10.5%		△30.4%		40.7%		1.9%	7.6% (CAGR)
	對	금액	21		23		6		27		32	108
	한	증감률	26.8%		9.2%		△74.1%		347.9%		18.5%	13.7%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국	M/S	6.1% / 5위		7.5% / 3위		2.8% / 8위		8.8% / 3위		10.3% / 2위	7.3% / 4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41	1위	127	1위	109	1위	120	1위	142	1위	16.6%
	호주	45	2위	21	4위	4	11위	20	4위	27	3위	3.3%
	일본	38	3위	32	2위	24	2위	15	5위	16	4위	8.4%
용도	독일	14	7위	11	7위	11	4위	38	2위	13	5위	△0.1%
	인도	7	8위	6	12위	4	9위	7	11위	11	6위	19.4%
· 터빈펌프, 볼류트 펌프 등												

- 전체 수입시장은 연평균 7.6%로 성장 중이며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40~51% 수준으로 점유율 1위를 유지 중
- 對한국 수입은 2020년 잠시 주춤하였지만, 그 이후 규모가 확대되어 2022년 기준 점유율 10.3%, 2위 수입 대상국으로 등극

8413.81 액체펌프; 그 밖의 펌프(급유용, 냉각·냉매용, 콘크리트 펌프 외)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금액	84		114		134		108		100		541
		증감률	94.6%		34.7%		18.0%		△19.3%		△7.3%		18.3% (CAGR)
	對 한 국	금액	13		30		32		3		46		124
		증감률	768.1%		132.8%		5.4%		△92.0%		1710.6%		98.6% (CAGR)
	M/S	15.4% / 2위		26.6% / 2위		23.8% / 2위		2.4% / 5위		46.1% / 1위		22.9% / 2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34	1위	33	1위	45	1위	71	1위	21	2위	5.6%
	미국		9	3위	8	4위	5	6위	7	2위	10	3위	13.4%
	독일		2	8위	2	12위	7	5위	7	3위	7	4위	28.9%
	싱가포르		2	10위	4	6위	8	4위	4	4위	2	5위	△10.3%
	일본		6	4위	12	3위	8	3위	2	8위	1	10위	△17.4%
용도	·유압공급장치, 배수펌프 등												

- 연평균성장률은 높으나 연도별 편차가 크며 높은 변동성이 특징인 품목으로 주요 국가별 순위의 등락도 잦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위권 유지 중
- 산업·건설 기자재 전반에 사용되며 인니 산단·인프라 성장과 동반성장 전망

8419.90 가열·증류·살균·건조 등 온도 변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 부분품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금액	117		114		190		151		185		758
		증감률	26.0%		△2.1%		66.2%		△20.8%		23.0%		14.8% (CAGR)
	對 한 국	금액	7		5		6		12		8		38
		증감률	21.5%		△24.6%		4.2%		120.1%		△32.4%		7.3% (CAGR)
	M/S	6.0% / 7위		4.6% / 5위		2.9% / 6위		8.0% / 4위		4.4% / 7위		5.0% / 5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25	2위	21	2위	93	1위	26	2위	84	1위	45.6%
	미국		9	4위	4	7위	5	9위	6	7위	20	2위	22.8%
	인도		1	17위	2	14위	9	4위	3	9위	18	3위	65.5%
	일본		8	5위	13	3위	6	5위	4	8위	12	4위	18.1%
	태국		1	14위	1	19위	0.4	16위	1	20위	10	5위	73.8%
	말레이시아		30	1위	36	1위	29	2위	54	1위	10	6위	△20.3%
용도	·물 가열기, 증류기, 의료·실험용 살균기, 동결 건조기 등												

- 전체 수입과 경쟁국들의 성장률 대비 對한국 수입 규모 성장률은 낮은 편
-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점유율 1위를 두고 경쟁하였으나 2022년 對중국 수입이 증가하고 對말레이시아 수입이 감소하며 두 국가 간의 차이가 벌어짐

8421.21 물 여과기 및 청정기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대한국	금액	266		185		124		89		180		844
		증감률	96.8%		△30.5%		△33.0%		△28.2%		101.4%		5.8% (CAGR)
		금액	11		18		10		6		14		59
		증감률	48.9%		69.8%		△46.7%		△38.7%		139.1%		14.6% (CAGR)
	M/S	4.0% / 6위		9.8% / 2위		7.8% / 4위		6.7% / 4위		7.9% / 4위		7.0% / 3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35	1위	83	1위	46	1위	41	1위	86	1위	17.6%	
	인도	12	5위	8	6위	16	2위	5	5위	19	2위	38.8%	
	미국	7	9위	7	8위	9	5위	4	6위	18	3위	24.4%	
	말레이시아	15	4위	12	4위	7	7위	2	9위	7	6위	6.2%	
	싱가포르	26	2위	8	7위	6	9위	2	8위	5	7위	△12.9%	
	일본	18	3위	14	3위	8	6위	8	2위	3	10위	△27.7%	
용도	· 건축물 폐수처리, 상하수도 처리, 가정용 정수기 등												

- 중국이 인도네시아 수입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차상위 국가들의 변동성은 높으나 최근 對인도 수입 추이가 강세를 보이는 중
- 일반 가정용 정수기부터 산업 인프라 용도까지 범위가 넓은 품목으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발전 및 청결·안전 인식 제고에 따른 기회 요소 존재

8421.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대한국	금액	92		81		104		77		149		504
		증감률	60.7%		△12.2%		28.9%		△26.8%		95.3%		21.1%(CAGR)
		금액	18		4		12		2		58		95
		증감률	1763.7%		△76.2%		178.9%		△84.1%		2920.3%		126.5%(CAGR)
	M/S	19.7% / 2위		5.4% / 7위		11.6% / 2위		2.5% / 7위		38.9% / 1위		18.8% / 2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26	1위	32	1위	52	1위	51	1위	40	2위	14.3%
	튀르키예		0.4	19위	0.5	18위	1	16위	0.4	15위	13	3위	97.6%
	미국		7	5위	4	6위	4	6위	4	2위	7	4위	5.0%
	태국		4	7위	3	8위	1	11위	3	3위	6	5위	13.8%
	독일		7	4위	5	5위	4	5위	2	9위	5	6위	13.2%
용도	·자동차 엔진 부품, 선박용 가스터빈 엔진 부품 등												

-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며 2개국의 점유율 합계가 전체의 2/3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름
* '18~'22년 한국,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 : 48 → 45 → 62 → 69 → 66
- 기존 미비한 수준이던 對튀르키예 수입 규모가 2022년 급상승하며 3위로 부상

8428.33 | 컨베이어 벨트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對 한 국	금액	156		245		82		64		129		676
		증감률	356.6%		56.7%		△66.5%		△21.4%		100.0%		30.3% (CAGR)
		금액	3		4		15		8		5		35
		증감률	108.2%		25.5%		248.5%		△45.2%		△40.0%		24.5% (CAGR)
	M/S	2.2% / 5위		1.7% / 2위		18.0% / 3위		12.6% / 2위		3.8% / 2위		5.2% / 2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31	1위	217	1위	38	1위	48	1위	115	1위	33.8%
	홍콩		0.00	23위	0.02	21위	0.05	17위	0.00	23위	2	3위	62.9%
	말레이시아		7	2위	3	5위	3	4위	1	4위	2	4위	26.0%
	일본		2	6위	4	4위	2	6위	2	3위	1	5위	4.0%
	독일		0.2	14위	3	7위	1	7위	1	5위	1	6위	△7.7%
	대만		0.2	16위	0.3	13위	2	5위	1	8위	1	7위	42.0%
용도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 등												

- 중국의 점유율이 최대 90%에 이르는 등 중국산 제품의 독점시장 성향 존재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등 국내 산업 발전 정책과 신규 설립 공장 확대에 의한 수출 확대 기회 전망

8428.90 | 특수 권양·취급·적하·양하용 기계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체 對 한 국	금액	69		80		121		89		174		533
		증감률	8.6%		14.9%		52.0%		△26.1%		94.1%		22.1% (CAGR)
		금액	5		4		35		8		8		60
		증감률	△30.0%		△5.6%		690.3%		△75.8%		△5.4%		3.6% (CAGR)
M/S	6.7% / 5위		5.5% / 4위		28.6% / 2위		9.4% / 4위		4.6% / 4위		11.2% / 2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21	1위	37	1위	36	1위	37	1위	108	1위	37.5%
	인도		2	11위	1	13위	1	14위	1	12위	13	2위	43.2%
	이탈리아		3	6위	3	5위	2	10위	4	6위	9	3위	7.0%
	독일		12	3위	9	2위	10	3위	8	3위	6	5위	0.8%
	일본		12	2위	6	3위	9	4위	10	2위	3	8위	△12.3%
용도	·유압 리프트, 철도화차 취급 장비, 산업용 기계 등												

-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5개년 평균 성장률 22.1%로 우상향 증가추세
-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수입시장 점유율 등락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매년 순위의 변동 존재

8429.52 | 메케니컬서블과 엑스커베이터; 360도 회전 상부구조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금액	986		591		293		1,220		1,928	5,017
	체	증감률	46.3%		△40.1%		△50.5%		317.1%		58.0%	23.4% (CAGR)
	對	금액	153		66		38		122		136	516
	한	증감률	59.1%		△57.2%		△41.5%		218.2%		11.2%	7.1%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국	M/S	15.6% / 4위		11.1% / 4위		13.1% / 3위		10.0% / 3위		7.1% / 4위	10.3% / 4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259	2위	196	1위	160	1위	772	1위	1,237	1위	53.9%
	일본	224	3위	141	3위	24	4위	106	4위	260	2위	6.9%
	태국	279	1위	151	2위	56	2위	172	2위	222	3위	4.3%
용도	프랑스	15	6위	24	5위	6	5위	21	5위	33	5위	9.4%
	싱가포르	26	5위	0.2	12위	0.3	10위	9	6위	27	6위	19.3%
• 굴착기												

- 굴착기로 구분되는 품목으로 2019~2020년 동안 수입 감소세를 보인 후 이후 그 규모가 증가하며 5개년 평균 성장률 23.4% 기록
- 인도네시아의 전체 굴착기 시장 또한 수입시장과 유사한 추세로 2021년부터 회복세로 전환하며 5개년 평균 성장률 8.8% 기록
 - * '18~'22년 전체 굴착기 시장 규모¹⁾(억 달러) : 41 → 32 → 25 → 40 → 45
- 건설·인프라, 채광 산업 등의 발전 추세에 따른 수출 확대 기회 요소 존재

8431.49 | 중장비 기계 부분품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	금액	750		599		372		626		979	3,326
	체	증감률	46.0%		△20.1%		△38.0%		68.3%		56.3%	13.8% (CAGR)
	對	금액	54		44		28		46		65	237
	한	증감률	43.7%		△19.3%		△37.2%		68.6%		40.4%	11.5%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국	M/S	7.2% / 3위		7.3% / 4위		7.4% / 3위		7.4% / 3위		6.7% / 4위	7.1%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80	2위	159	2위	129	1위	210	1위	341	1위	23.6%
	일본	271	1위	187	1위	98	2위	189	2위	281	2위	11.1%
	미국	42	5위	39	5위	27	4위	30	5위	69	3위	18.3%
용도	이탈리아	31	6위	17	6위	11	6위	23	6위	46	5위	21.5%
	싱가포르	49	4위	59	3위	23	5위	42	4위	43	6위	4.8%
• 유압 브레이커, 크러셔, 무한궤도용 트랙 등												

- 2021년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수입시장 5개년 평균 성장률 13.8% 기록
- 2020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수입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하였으며, 한국은 3~4위권 대, 수입시장 점유율 7% 내외를 유지 중

1) 자료 : Euromonitor, Earth-moving equipment Indonesia total market size

8477.90 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용 기계 부분품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97		99		78		119		125	517
		증감률	2.8%		2.1%		△21.1%		53.1%		5.2%	5.9% (CAGR)
	대한국	금액	4		5		5		9		8	31
		증감률	△12.1%		27.5%		△10.9%		89.4%		△8.0%	11.7%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4.3%/9위		5.3%/6위		6.0%/6위		7.5%/6위		6.5%/6위	6.0%/6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21	1위	21	1위	18	1위	24	2위	30	1위	12.2%
	독일	11	3위	8	4위	10	3위	12	4위	19	2위	18.0%
	미국	5	6위	5	7위	4	7위	25	1위	15	3위	14.6%
용도	일본	16	2위	17	2위	12	2위	15	3위	13	4위	△7.5%
	대만	10	4위	12	3위	9	4위	9	5위	10	5위	0.1%
·사출성형기 부분품 등												

-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1억 달러 내외로 5개년 평균 성장률 5.9% 기록
- 그러나 한국, 중국, 독일, 미국의 성장률이 두 자리 숫자 대를 기록하며 4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과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 * '18~'22년 한국, 중국, 독일,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 : 43 → 40 → 47 → 59 → 57

8479.89 기타 기계류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235		322		377		577		344	1,854
		증감률	21.4%		37.2%		16.9%		53.1%		△40.3%	12.2% (CAGR)
	대한국	금액	14		25		49		35		25	148
		증감률	29.7%		71.6%		97.8%		△28.2%		△29.9%	17.3%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6.1%/6위		7.7%/4위		13.0%/2위		6.1%/3위		7.2%/4위	8.0%/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40	2위	102	1위	157	1위	321	1위	131	1위	22.0%
	일본	56	1위	64	2위	38	3위	46	2위	35	2위	△3.2%
	미국	14	7위	20	5위	30	4위	21	7위	33	3위	24.8%
용도	싱가포르	15	5위	17	6위	22	5위	19	8위	19	5위	11.7%
	홍콩	1	18위	0.5	24위	1	19위	22	6위	19	6위	118.6%
·프레스, 코팅기, 전자부품 장착기, 공기청정기 등												

- 기저효과로 전체 수입시장은 2022년에, 對한국 수입액은 2021년과 2022년에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5개년 평균 성장률은 각 12.2%, 17.3% 기록
- 한국은 일시적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6~7% 대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8479.90 | 기타 기계류 부분품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73		134		161		167		166	801
		증감률	31.6%		△22.9%		20.7%		3.3%		△0.7%	4.7% (CAGR)
	대한국	금액	10		13		7		11		8	50
		증감률	60.1%		26.5%		△43.6%		50.1%		△27.7%	4.4%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5.9%/ 6위		9.7%/ 4위		4.6%/ 7위		6.6%/ 4위		4.8%/ 6위	6.2%/ 5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41	1위	31	1위	52	1위	51	1위	53	1위	6.3%
	말레이시아	25	2위	21	2위	28	2위	23	3위	29	2위	4.0%
	일본	21	3위	20	3위	14	4위	27	2위	19	3위	3.1%
용도	미국	7	9위	7	7위	8	6위	9	6위	9	4위	6.8%
	싱가포르	15	4위	12	5위	13	5위	9	5위	8	5위	1.7%
·금속처리기, 토목·건축용 기기 등 각종 산업용 기계 부분품												

- 5개년 평균 4.7% 성장, 연간 전체 수입 규모 160억 달러 수준
-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3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
 - * '18~'22년 중국, 말레이, 일본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 : 50 → 54 → 58 → 61 → 61

8481.80 |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575		667		603		726		860	3,432
		증감률	32.4%		16.0%		△9.5%		20.3%		18.5%	14.6% (CAGR)
	대한국	금액	23		23		28		58		49	181
		증감률	4.9%		0.0%		18.0%		109.2%		△15.8%	16.9%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4.1%/ 7위		3.5%/ 8위		4.6%/ 6위		8.0%/ 4위		5.7%/ 3위	5.3%/ 6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215	1위	271	1위	244	1위	282	1위	405	1위	21.8%
	일본	87	2위	71	2위	50	2위	70	2위	91	2위	10.3%
	미국	34	5위	34	6위	39	5위	38	5위	46	4위	11.2%
용도	태국	36	4위	39	4위	27	7위	33	7위	40	5위	3.7%
	인도	11	10위	15	10위	12	10위	20	9위	30	6위	21.9%
·배관 밸브, 펌프 밸브, 유체 제어 기기 등												

- 최근 5년간 중국산 제품의 수입 점유율은 매년 2/3를 상회하고 있으며 뒤이어 일본산 제품이 점유율 2위를 유지 중
- 2022년 기준, 대한국 수입 순위는 3위로 금액은 2위인 일본의 54% 수준
 - 그러나, 5개년 평균 성장률에서는 일본보다 앞서고 있음에 현재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여 점유율 확대 및 순위권 상승 필요

8534.00 | 인쇄회로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對한국	금액	390		309		355		454		511		2,018
		증감률	△1.4%		△20.9%		15.1%		27.8%		12.6%		5.3% (CAGR)
		금액	32		26		27		30		35		150
		증감률	66.3%		△18.4%		1.9%		10.3%		16.6%		12.2% (CAGR)
	M/S	8.3% / 6위		8.6% / 5위		7.6% / 5위		6.5% / 4위		6.8% / 5위		7.4% / 5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06	1위	75	2위	108	1위	183	1위	194	1위	11.8%
	싱가포르		65	2위	82	1위	100	2위	82	2위	86	2위	1.3%
	태국		48	3위	39	3위	36	3위	56	3위	67	3위	9.1%
	베트남		33	5위	21	6위	30	4위	29	5위	42	4위	6.0%
	대만		13	8위	10	9위	10	7위	17	8위	21	6위	17.8%
용도	·인쇄회로												

- 중국, 싱가포르, 태국 3개국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이 증가 추세
* '18~'22년 중국, 싱가포르, 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 60 → 56 → 64 → 69 → 71
- 전체 시장의 성장세에 따른 수입시장 또한 연평균 5.3% 성장 중
* '18~'22년 인니 인쇄회로 및 집적회로(IC) 시장 규모¹⁾(억 달러) : 19 → 27 → 25 → 28 → 30

8537.20 | 전기제어·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판; 1,000V 초과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對 한국	금액	207		130		156		116		195		805
		증감률	42.4%		△37.2%		20.0%		△25.9%		68.2%		6.0% (CAGR)
		금액	13		10		12		2		22		59
		증감률	57.9%		△20.9%		15.0%		△83.5%		1048.5%		22.2% (CAGR)
	M/S	6.2% / 4위		7.9% / 3위		7.5% / 3위		1.7% / 11위		11.5% / 2위		7.4% / 2위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100	1위	68	1위	71	1위	56	1위	140	1위	9.6%
	일본		14	3위	9	5위	9	4위	7	4위	7	3위	△16.3%
	싱가포르		3	8위	11	2위	14	2위	3	7위	4	4위	△0.8%
	미국		7	6위	3	6위	3	9위	6	5위	3	5위	△2.0%
	독일		5	7위	2	8위	7	6위	1	14위	3	6위	△8.5%
용도	· 변압기, 진공관,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등 고전압용 배전반												

-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연평균 6.0%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주요국별 수입액은 감소세를 보임
- 2022년 對한국 수입액은 기저효과(전년 대비 10배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5개년 평균 성장률 22.2%를 기록

1) 자료 : Euromonitor, Integrated and printed circuits Indonesia total market size

8542.31 전자집적회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304		320		332		457		1,009	2,422
		증감률	7.3%		5.3%		3.7%		37.6%		120.8%	28.9% (CAGR)
	대한국	금액	51		101		124		121		204	600
		증감률	62.9%		100.1%		22.1%		△2.2%		69.2%	45.8%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16.6% / 3위		31.6% / 1위		37.2% / 1위		26.4% / 2위		20.3% / 2위	24.8% / 2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60	1위	50	2위	75	2위	126	1위	421	1위	62.9%
	대만	15	7위	15	7위	32	3위	95	3위	191	3위	57.5%
	일본	42	4위	48	3위	26	4위	43	4위	51	4위	7.5%
용도	싱가포르	56	2위	42	4위	21	5위	18	5위	41	5위	△10.1%
	베트남	6	9위	10	8위	8	10위	16	6위	28	6위	21.3%
·모노리식·하이브리드·복합구조칩·복합부품 집적회로 등												

- 전체 수입시장 규모 연평균 28.9% 높은 성장세 기록 중
- 특히 2022년에는 전체 수입시장의 증가(전년 대비 120.8%)와 더불어 상위 3개국 (중국, 한국, 대만) 수입액도 큰 폭으로 증가(전년 대비 139.0%)
- * '18~'22년 한국, 중국, 대만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 : 41 → 52 → 69 → 75 → 81

8542.90 전자집적회로; 부분품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646		547		886		1,616		2,051	5,746
		증감률	42.0%		△15.3%		61.8%		82.5%		26.9%	35.1% (CAGR)
	대한국	금액	15		15		55		75		304	463
		증감률	1.5%		△0.1%		276.9%		35.1%		307.3%	83.9%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2.3% / 10위		2.7% / 7위		6.2% / 5위		4.6% / 6위		14.8% / 3위	8.1% / 6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대만	73	6위	141	2위	227	1위	390	2위	715	1위	61.0%
	중국	80	4위	32	5위	78	4위	171	4위	459	2위	63.8%
	싱가포르	116	1위	176	1위	182	2위	186	3위	201	4위	17.0%
용도	말레이시아	75	5위	69	3위	151	3위	139	5위	123	5위	19.9%
	필리핀	102	3위	10	10위	43	7위	465	1위	119	6위	20.8%
·메모리 모듈,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원 관리 장치(PMU) 등												

-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6.46억 달러에서 20.5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준 대만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과반(57.2%)을 차지
- 한국 또한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2022년 수입액이 3억 달러를 웃도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

8543.70 그 밖의 전기기기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20		118		111		161		181		691
		증감률	3.4%		△1.1%		△6.1%		45.0%		12.3%		9.3% (CAGR)
	대한국	금액	11		13		8		6		18		56
		증감률	59.7%		10.7%		△36.0%		△29.1%		214.9%		20.4%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9.5% / 3위		10.7% / 3위		7.3% / 3위		3.6% / 9위		10.0% / 3위		8.1% / 3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59	1위	61	1위	65	1위	75	1위	85	1위	7.5%
	일본		16	2위	13	2위	10	2위	14	3위	13	4위	△5.9%
	말레이시아		8	4위	8	4위	6	4위	12	4위	12	5위	9.5%
용도	싱가포르		3	8위	3	5위	3	6위	14	2위	9	7위	9.7%
	태국		4	6위	2	7위	2	8위	6	8위	18	2위	36.9%

· 고주파증폭기, 오디오믹서, 이온정수기, 전자사전, 센서 등

- 전체 수입 규모 최근 2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 연평균성장률 9.3% 기록
- 주요 수입 대상국 중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크며 對중국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5개년 평균 성장률 7.5%, 2022년 수입액 8천5백만 달러 기록

8544.42 절연 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케이블; 접속자가 부착된 것

인니 수입 동향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전체	금액	100		117		156		146		197		716
		증감률	△13.7%		17.9%		32.7%		△6.2%		35.3%		11.3% (CAGR)
	대한국	금액	10		9		11		12		22		64
		증감률	△20.4%		△11.2%		15.3%		18.0%		74.4%		10.9% (CAGR)
주요 수입 대상국 (백만 달러)	M/S		10.3% / 2위		7.8% / 3위		6.8% / 3위		8.5% / 2위		11.0% / 2위		9.0% / 2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CAGR
	중국		63	1위	65	1위	68	1위	91	1위	121	1위	10.3%
	베트남		1	13위	3	9위	2	9위	3	8위	7	3위	37.8%
	말레이시아		1	12위	1	15위	42	2위	1	13위	7	4위	50.9%
용도	싱가포르		4	3위	4	4위	4	6위	6	4위	5	5위	10.7%
	태국		3	4위	3	6위	2	10위	4	6위	4	6위	9.8%

· 와이어하네스, 전원 연결 코드, USB 케이블 등 전자기기 전반

- 전체 수입액은 2020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소폭 하락 후 202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5년간 변동 추세를 보임
- 한국은 2~3대 공급국으로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눈에 띄는 증가세를 기록
- 반면, 싱가포르와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큰 상승 또는 하락 추세는 보이지 않음

- ◆ 50대 유망품목별 △수입시장 규모와 △한국산 수입 점유율을 기준으로 분류
- ◆ 유망품목 1~4군별 주요 특징, 벤치마킹 사례 제시 통한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 제시

제3장 유망품목군별 수출 확대 전략

제1절 유망품목군 분류

□ 분류 및 군집화

- 50대 유망품목의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입시장('18~'22년 수입액) 규모와 △한국산 수입 점유율(M/S)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4분위를 나누고 각 분위를 1~4군으로 분류·군집화

* 중앙값 : (전체 수입시장 규모) 853백만 달러, (한국산 수입 M/S) 9.05%

□ 유망품목군 분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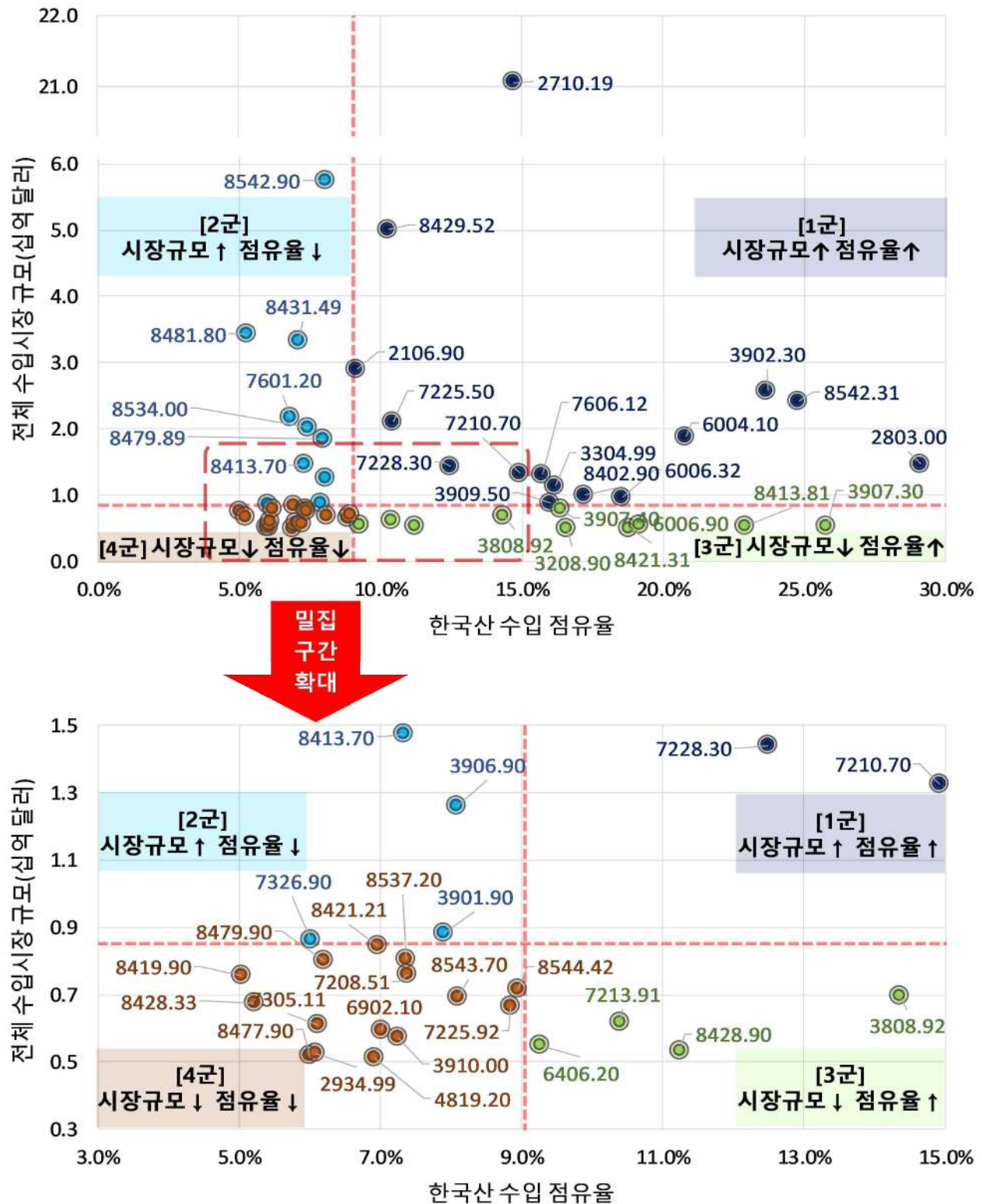
- 1~4군 각 15개, 2~3군 각 10개 품목(HS코드 6단위)으로 분류됨

< 50대 유망품목별 군집화 결과 >

군	HS코드	산업/분야	대표 제품	군	HS코드	산업/분야	대표 제품
1군 (15개)	2106.90	식품	홍삼 음료, 커피 조제품	3군 (10개)	3208.90	도료	페인트, 코팅제
	2710.19	석유화학	윤활유, 휘발유		3808.92	정밀화학	농약 원제, 살균제
	2803.00	정밀화학	카본 블랙		3907.30	합성수지	에폭시 수지
	3304.99	화장품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3907.40	합성수지	폴리카보네이트(PC)
	3902.30	합성수지	폴리프로필렌(PP)		6006.90	섬유	기타 섬유
	3909.50	합성수지	폴리우레탄(PU)		6406.20	생활용품	신발 부분품
	6004.10	섬유	탄성 섬유		7213.91	철강소재	비합금강 봉
	6006.32	섬유	기타 섬유		8413.81	산업기계	유압공급장치, 배수펌프
	7210.70	철강소재	클래드 강		8421.31	기계, 자동차	내연기관 공기 여과기
	7225.50	철강소재	합금강 평판 압연		8428.90	산업기계	유압 리프트, 적하 기계
	7228.30	철강소재	합금강 봉	4군 (15개)	2934.99	정밀화학	농약 원제, 의약품 원료
	7606.12	철강소재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3910.00	합성수지	실리콘수지
	8402.90	산업기계	열교환기, 과열수 보일러		4819.20	패키징	포장용 상자
	8429.52	중장비	굴착기		6902.10	건설	내화 벽돌·타일
	8542.31	전기·전자	프로세서, 변환기		7208.51	철강소재	비합금강 평판 압연
2군 (10개)	3901.90	합성수지	폴리에틸렌(PE)		7225.92	철강소재	합금강 평판 압연(아연)
	3906.90	합성수지	아크릴 중합체		7305.11	철강소재	철강 관
	7326.90	철강, 기계	보빈, 철강 제품		8419.90	산업기계	물 가열기, 증류기
	7601.20	철강소재	알루미늄 합금		8421.21	산업기계	물 여과기, 청정기
	8413.70	산업기계	터빈펌프, 볼류트펌프		8428.33	산업기계	컨베이어 벨트, 엘리베이터
	8431.49	중장비	유압 브레이커		8477.90	산업기계	고무 사출성형기 부품
	8479.89	산업기계	프레스, 코팅기		8479.90	산업기계	금속처리기 부품
	8481.80	산업기계	배관 밸브, 유체제어기		8537.20	전기·전자	변압기, 고압배전반
	8534.00	전기·전자	인쇄회로		8543.70	전기·전자	고주파증폭기, 오디오
	8542.90	전기·전자	메모리 모듈		8544.42	전기·전자	와이어하네스, 절연전선

- 유망품목군별 분포는 아래 도표와 같음

< 50대 유망품목군 분포도 >



* 중앙값 : (전체 수입시장 규모) 853백만 달러, (한국산 수입 점유율) 9.05%

제2절 수출 확대 전략

1군 프리미엄화 및 시장 선도 전략 품목군

< 1군 유망품목 리스트(단위 : 백만 달러, %) >

연번	HS코드	산업/분야	대표 품목	5개년 수입	한국산 M/S
1	2106.90	식품	홍삼·인삼 음료	2,901	9.1
2	2710.19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윤활유	21,061	14.7
3	2803.00	정밀화학	카본 블랙	1,476	29.1
4	3304.99	화장품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1,142	16.2
5	3902.30	합성수지	폴리프로필렌(PP)	2,579	23.7
6	3909.50	합성수지	폴리우레탄(PU)	874	16.0
7	6004.10	섬유	탄성 섬유	1,881	20.8
8	6006.32	섬유	기타 섬유	967	18.6
9	7210.70	철강소재	클래드 강	1,323	14.9
10	7225.50	철강소재	합금강 평판 압연	2,117	10.4
11	7228.30	철강소재	합금강 봉	1,439	12.5
12	7606.12	철강소재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1,313	15.7
13	8402.90	산업기계	열교환기, 과열수 보일러	1,002	17.2
14	8429.52	중장비	굴착기	5,017	10.3
15	8542.31	전기·전자	프로세서, 변환기	2,422	24.8

□ 품목군 주요 특징

- 50대 유망품목 중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입 규모가 큰 품목이며 한국산 수입 점유율도 높은 품목
-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연간 수입 규모는 평균 6.3억 달러 수준
* 특이치(2710.19 엔진오일, 등유, 경유 등) 제외 시 연간 수입 규모 평균 3.8억 달러
- 한국산 수입 점유율이 최대 29%를 차지하는 만큼 현지 수입 경쟁시장에서 리더형 지위(최상위권)를 확보한 경우가 대다수
* 한국산 수입 순위 분포(품목 수) : 1위(1), 2위(8), 3위(4), 4위(1), 5위(1)
-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력 또한 우수 또는 양호한 수준으로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주력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수출 확대 전략

- 프리미엄화를 통한 수익 확대 도모
 - 제품의 품질,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강조하여 프리미엄 제품으로의 이미지를 구축
 - 높은 품질과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고가정책을 시행하고 고객에게 이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당화
 -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밀착형 서비스나 제품 옵션을 제공하여 고객 경험을 향상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친환경 제품, 친환경 생산 프로세스 도입 등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강화
 - 사회공헌, 기부 활동 등 현지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
 - 제품 생산 과정이나 재료의 윤리성, 투명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고객과 공유하여 브랜드 가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신기술 및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
 - 신기술과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
 -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
 - 고객의 미래 니즈를 예측하고, 빅데이터, 자동화 등의 미래지향적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
- 이 외에도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항상 유지하고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쟁사 움직임, 소비자 니즈, 트렌드 등 외부 환경을 주시하여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

벤치마킹 사례 : Castrol (영국)

□ 기업 개요

- 인도네시아 진출 연도 : 1998년
- 관련 HS코드 : 2710.19(석유와 역청유 : 기타)
- 주요 품목 : 자동차 윤활제, 산업용 윤활제, 브레이크유 등

□ 추진 활동 및 의의 : 시장선도형 R&D 투자

- Castrol Indonesia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급받아 저탄소 디자인, 탄소 중립성, 소비자 솔루션 및 생활 수준 향상을 약속
-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Performance Bio 윤활제 제품*을 개발에 접목해 황과 염소와 같은 첨가제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일반 윤활제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추구
 - * GE ESS(Biodegradable synthetic transmission oil), HE ESU(Biodegradable ester-based hydraulic oil), SW(Biodegradable ester-based slideway lubricant)
- Castrol은 시장에 없던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인도네시아 자동차 윤활제 브랜드 1위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성공

< 인도네시아 자동차 윤활제 브랜드 순위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업명	TBI	기업명	TBI	기업명	TBI
1	Castrol	28.9	Castrol	31.1	Castrol	32.9
2	Shell Helix	12.7	Shell Helix	14.4	Shell Helix	14.3
3	Fastron	10.7	Fastron	11.2	Fastron	12.7
4	Mesran	9.6	Mesran	7.7	Mesran	7.0
5	Prima XP	6.6	Prima XP	5.6	Prima XP	3.3

* TBI(Top Brand Index) :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재사용률 등 기반 브랜드 지수

** 자료 : Top Brand Award

벤치마킹 사례 : 3M (미국)

□ 기업 개요

- 인도네시아 진출 연도 : 1975년
- 관련 HS코드 : 3909.50(폴리우레탄)
- 주요 품목 : 연마재, 접착제, 밀폐제, 충전제, 필름, 절연체 등

□ 추진 활동 및 의의 :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 2018년부터 사회적 기업인 Nara Kreatif 재단과 협력하며 어린이 대상 교육 및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 The Nature Conservancy와의 협력으로 인도네시아 Semarang 지역 호수에 맹그로브(Mangrove) 나무를 심는 환경 보전 활동 추진

< 3M 인도네시아의 사회공헌 활동 >



* 자료 : 3M 인도네시아

-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대외로부터 각종 수상

*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HR Asia)”, “HR Excellence Award - Learning & Development(인도네시아 SWA Magazine)” 등

2군

차별화 마케팅 및 기회 포착 전략 품목군

< 2군 유망품목 리스트(단위 : 백만 달러, %) >

연번	HS코드	활용 분야	대표 품목	5개년 수입	한국산 M/S
1	3901.90	합성수지	폴리에틸렌(PE)	882	7.9
2	3906.90	합성수지	아크릴 중합체	1,259	8.1
3	7326.90	철강소재, 산업기계	보빈, 철강 제품	861	6.0
4	7601.20	철강소재	알루미늄 합금	2,180	6.8
5	8413.70	산업기계	터빈펌프, 볼류트펌프	1,473	7.3
6	8431.49	중장비	유압 브레이커, 무한궤도 트랙	3,326	7.1
7	8479.89	산업기계	프레스, 코팅기	1,854	8.0
8	8481.80	산업기계	배관 밸브, 유체제어기	3,432	5.3
9	8534.00	전기·전자	인쇄회로	2,018	7.4
10	8542.90	전기·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모듈	5,746	8.1

□ 품목군 주요 특징

- 50대 유망품목 중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입 규모가 큰 품목이나 한국산 수입 점유율은 낮은 품목
-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연간 수입 규모는 평균 4.6억 달러 수준
- 현지 수입 경쟁시장에서 경쟁국(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은 챌린저형 지위(차상위권)를 확보한 경우가 대다수
* 한국산 수입 순위 분포(품목 수) : 3위(2), 4위(4), 5위(1), 6위(3)
-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 시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을 대폭 개선하는 등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확대 도모 집중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수출 확대 전략

- 디지털 홍보 마케팅을 활용하여 현지 인지도·접근성 및 점유율 확대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휴대폰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디지털 마케팅이 매우 효과적
 - * '22년 인도네시아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5.39시간으로 세계 1위 수준(Statista)
 -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정확한 타겟을 식별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제품의 가치와 이점을 홍보
 - 온라인 광고, 검색 결과 상위 노출 등 제품 접근성 강화
 - 웹사이트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게 홈페이지를 번역 및 수정하여 현지 고객의 관심을 끌어내고 신뢰를 구축
- 시장에서 이미 성공한 선도기업 벤치마킹
 - 업계를 분석하여 선도기업의 전략과 시장 공략 방법 등을 분석하고 성공사례를 참고
 - 선도기업들이 채택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응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
 -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지식·경험 공유를 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
- 수평적 확장을 통한 비유기적 성장 도모
 - 현재 수출하고 있는 시장 외에도 시장을 조사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
 - 기존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도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성장 추구
 - 현지 파트너나 유통 업체와의 협력으로 현지 시장을 더욱 깊게 진입
 - 수입쿼터 등 비관세 장벽 존재 시 수입쿼터를 기보유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및 합작(M&A, JV, 투자 등)을 통해 수입 규제 정면 돌파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 철강 제품의 사전 수입 승인 쿼터 축소 등 자국 철강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 중
- 이 외에도 시장 특성, 고객 니즈, 경쟁 환경 등을 분석하고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발견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고객의 관심을 유지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음

벤치마킹 사례 : Dunlop (아일랜드)

□ 기업 개요

- 인도네시아 진출 연도 : 1995년
- 관련 HS코드 : 8481.80(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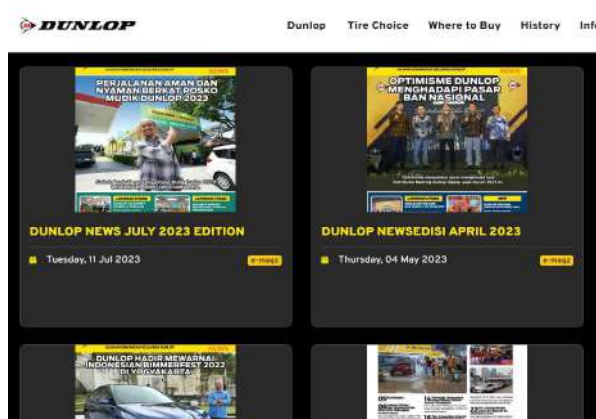
□ 추진 활동 및 의의 : 온라인 홍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발생 이후 Dunlop은 내·외부 정비사,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자사 타이어 제품과 정비 관련 교육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팬데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 2022년 4분기부터는 분기별 e-매거진을 발행하여 기존 및 신규·잠재 고객 대상으로 Dunlop의 제품과 대내외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도네시아 타이어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에 접어들어 타이어 누적 생산량 3억 개를 돌파

< 온라인 교육 >



< e-매거진 >



* 자료 : Dunlop 인도네시아

벤치마킹 사례 : Torishima (일본)

□ 기업 개요

- 인도네시아 진출 연도 : 1984년
- 관련 HS코드 : 8413.70(액체 원심펌프)
- 주요 품목 : 산업용 펌프, 엔지니어링 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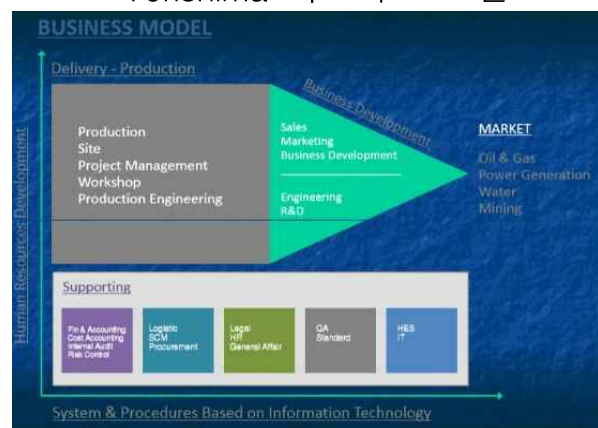
□ 추진 활동 및 의의 : 현지 합작투자 통한 진출 확대

- 1984년 Torishima Pump Mfg(일본)은 Guna Elektro(인도네시아)와 합작투자자로 현지에 Torishima Guna Indonesia(‘18년 기준 자본 5백만 달러, 임직원 수 110명)를 설립하여 일본 생산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 현지 채널을 통한 생산·판매 네트워크를 구축
- 1992년 Torishima Pump Mfg는 Kobayashi Shoji(일본)와 Guna Elektro(인도네시아)와 합작으로 Geteka Founindo(‘18년 기준 자본 6백만 달러, 임직원 수 150명)를 설립하고 OEM 주조 제품 공급 사업을 개시
- 또한, 1999년에 Guna Elektro(인도네시아)와 추가로 합작사인 Torishima Guna Engineering을 설립하여 EPC, 유지·보수 분야로 사업을 확장
- 기존 부품(펌프) 위주의 사업영역을 전후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며 타 기업과 차별화된 토탈 솔루션 제공으로 현지 진출 규모를 지속 확장 중

< Torishima의 인도네시아 네트워크 >



< Torishima 비즈니스 모델 >



* 자료 : Torishima Guna Indonesia

3군

현지 산업 주도 및 개척 전략 품목군

< 3군 유망품목 리스트(단위 : 백만 달러, %) >

연번	HS코드	산업/분야	대표 제품	5개년 수입	한국산 M/S
1	3208.90	도료	페인트, 코팅제	500	16.6
2	3808.92	정밀화학	농약 원제, 살균제	697	14.4
3	3907.30	합성수지	에폭시 수지	544	25.8
4	3907.40	합성수지	폴리카보네이트(PC)	798	16.4
5	6006.90	섬유	기타 섬유	559	19.2
6	6406.20	생활용품	신발 부분품	550	9.3
7	7213.91	철강소재	비합금강 봉	616	10.4
8	8413.81	산업기계	유압공급장치, 배수펌프	541	22.9
9	8421.31	기계, 자동차	내연기관 공기 여과기	504	18.8
10	8428.90	산업기계	유압 리프트, 적하 기계	533	11.2

□ 품목군 주요 특징

- 50대 유망품목 중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입 규모는 작은 편이나, 한국산 수입 점유율이 높은 품목
-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연간 수입 규모는 평균 1.2억 달러 수준
- 한국산 수입 점유율이 평균 17%, 최대 25%를 차지하며 현지 수입 경쟁시장에서 최상위권을 확보한 경우가 대다수
 - * 한국산 수입 순위 분포(품목 수) : 1위(2), 2위(4), 3위(2), 4위(2)
- 한국산 제품의 현지 인지도 및 경쟁력은 일정 수준 확보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자체 산업 및 수입시장의 규모 한계로 인해 수동적인 수출 확대는 어려울 수 있는 품목군으로 능동적 개척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수출 확대 전략

- 현지 정부 및 사회와의 협업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
 - 관련 산업군 내의 기업들과의 기술 교류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 공유와 협력을 촉진
 -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나 정책을 수립·추진
 - 한국 공·관과의 협업으로 현지 정부의 보조금, 세제 혜택, 시설 지원 등을 적극 개선하고 활용하여 현지 산업 확장을 지원
 - 현지 노동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시범사업을 통한 신산업 육성
 -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구현
 - 시범사업(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현지 정부·사회에 신산업의 잠재력을 입증하고 사업 모델을 확립
 - 현지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개발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여 고객의 반응을 평가하고 개선
 - 성공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스케일업 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
- 시장 리더십 강화
 - 현지 시장에서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품질과 혁신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
 -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시장에서 앞설 수 있는 제품을 개발
 - 산업 내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브랜드의 신뢰성과 지위를 높이고 시장을 주도
- 또한, 현지 문화와 규정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 및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
- 이러한 전략들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의 밀접한 협력, 현지 정부 및 기관과의 논의 및 협조, 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끊임없이 전략을 최적화하고 발전시킬 필요성도 존재

벤치마킹 사례 : Nippon Paint (일본)

□ 기업 개요

- 인도네시아 진출 연도 : 1969년
- 관련 HS코드 : 3907.30(에폭시 수지)
- 주요 품목 : 페인트, 표면 코팅제, 접착제 등

□ 추진 활동 및 의의 : 산학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주도

-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Human Development Index(HDI)*는 0.705(평균 교육 기간 8.6년)로 세계 평균 0.732(평균 교육 기간 8.6년) 대비 낮은 편
 - * HDI : UNDP에서 국가별 지식, 수명, 소득수준을 기반으로 발표하는 인간 발달 지수
 - ** 주요국별 HDI : 스위스(0.962, 1위), 싱가포르(0.939, 12위) 한국·일본(0.925, 공동 19위), 미국(0.921, 21위), 말레이시아(0.803, 62위), 중국(0.768, 79위), 인도네시아(0.705, 114위)
- 2023년 인도네시아 말랑 국립대학교 학생에게 자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페인트 및 에폭시 산업에서의 인력 양성을 주도
- 페인트 분야를 넘어 그래픽 디자인 산업에 관심 있는 경영학과 학생에게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Nippon Paint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간접 체험 기회 제공

< Nippon Paint - 말랑 국립대학교 산학 협력 >



* 자료 : 인도네시아 말랑 국립대학교

- 2022년 Top Brand Award의 인도네시아 인테리어 페인트 브랜드 지수(TBI)로 Nippon Paint는 2위(27.4)에 등재
 - * 1위 Dulux(43.5), 3위 Juton(17.4), 4위 Propan Decorlotus(10.4)

벤치마킹 사례 : Hitachi (일본)

□ 기업 개요

- 인도네시아 진출 연도 : 2013년
- 관련 HS코드 : 8413.81(액체 펌프)
- 주요 품목 : 용수 솔루션, 액체 펌프, 트랜스미션, ICT 장비 등

□ 추진 활동 및 의의 : 산학 및 주요 산업단지 협력

- 2020년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현 Mitsubishi Power)은 인도네시아 반둥 공과대학교와 암모니아 수소 R&D 협정(MOU)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발전소 운영 진단 기술 축진을 약속
- 2022년 Hitachi, Unilever(영국), Pertamina(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등은 Jababeka 산업단지와 동남아 최초 넷제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동 선언문 서명
 - * 같은 해 10월 Hitachi는 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 1,200kWp 용량의 지붕형 태양광 설비 설치

< 반둥공과대학 R&D 협정 >



< 넷제로 산단 조성 공동 선언 >



* 자료 : 인도네시아 반둥 공과대학교, Mitsubishi Power, Pertamina, Jababeka

- 이에, Hitachi의 인도네시아 브랜드 지수와 순위는 점진적으로 상승 중

< 인도네시아 전기 액체 펌프 브랜드 순위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업명	TBI	기업명	TBI	기업명	TBI
1	Sanyo	34.3	Sanyo	38.0	Sanyo	35.8
2	Shimizu	30.6	Shimizu	28.2	Shimizu	25.8
3	DAB	9.5	Panasonic	10.3	Panasonic	10.7
4	Panasonic	7.1	Hitachi	8.6	Hitachi	9.1
5	Hitachi	7.0	DAB	7.3	DAB	5.6

* TBI(Top Brand Index) :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재사용률 등 기반 브랜드 지수

** 자료 : Top Brand Award

4군

중장기 전략 품목군

< 4군 유망품목 리스트(단위 : 백만 달러, %) >

연번	HS코드	활용 분야	대표 품목	5개년 수입	한국산 M/S
1	2934.99	정밀화학	농약 원제, 의약품 원료	525	6.1
2	3910.00	합성수지	실리콘수지	571	7.2
3	4819.20	패키징	포장용 상자	511	6.9
4	6902.10	건설	내화 벽돌·타일	592	7.0
5	7208.51	철강소재	비합금강 평판 압연	759	7.4
6	7225.92	철강소재	합금강 평판 압연(아연)	666	8.9
7	7305.11	철강소재	철강 관	611	6.1
8	8419.90	산업기계	물 가열기, 증류기	758	5.0
9	8421.21	산업기계	물 여과기, 청정기	844	7.0
10	8428.33	산업기계	컨베이어 벨트, 엘리베이터	676	5.2
11	8477.90	산업기계	고무 사출성형기 부품	517	6.0
12	8479.90	산업기계	금속처리기 부품	801	6.2
13	8537.20	전기·전자	변압기, 고압배전반	805	7.4
14	8543.70	전기·전자	고주파증폭기, 오디오	691	8.1
15	8544.42	전기·전자	와이어하네스, 절연전선	716	9.0

□ 품목군 주요 특징

- 50대 유망품목 중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입 규모가 작은 편이며 한국산 수입 점유율도 낮은 품목
-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연간 수입 규모는 평균 1.3억 달러 수준
- 중국, 일본, 인도, 독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경쟁국이 최상위권에 있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산 수입 점유율 또한 최상위권(2~3위)부터 차상위권(4~6위)까지 넓게 분포
* 한국산 수입 순위 분포(품목 수) : 2위(4), 3위(4), 4위(2), 5위(3), 6위(2)
- 품목별 차이는 있으나,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의 규모 확대와 한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품목군으로 중장기 전략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수출 확대 전략

○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진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과 전망을 평가
-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간의 수출 목표량 및 성장률을 설정
- 수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영업 관점 외 생산, 유통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
- 전략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금, 기술 등의 자원을 할당하고 관리
- 중간 평가 및 보정을 통해 로드맵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 산업 육성정책 및 제도 동향 모니터링

- 현지 정부의 산업 육성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수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 현지 산업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수출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
-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현지 정부의 제도, 신고 절차, 관세 등을 숙지
- 현지 정부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탐색하여 현지 환경에서의 혜택 및 지원을 극대화

○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 로컬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지 생산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
-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으로 신규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

○ 이 외에도 내부 역량 강화, 시장에 대한 민첩성과 유연함을 갖춘 리더십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다변화를 추구하는 능력이 중요

벤치마킹 사례 : Schneider Electric (프랑스)

□ 기업 개요

- 인도네시아 진출 연도 : 1973년
- 관련 HS코드 : 8537.20(고전압 전기제어 기기)
- 주요 품목 : PLC, Drivers, Circuit breakers, Switches 등

□ 추진 활동 및 의의 : 지속가능한 로드맵 수립

- Schneider Electric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GD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넷제로 전기 생산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탄소 배출 저감 목표(2030년까지 약 32% 저감)에 참여 의사를 공표
- 특히, Cikarang 스마트 팩토리는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넷제로 배출 시스템, 생태계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강조
 - 연간 최대 228MWh를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여 연간 약 181톤의 탄소를 절감, 이는 매년 9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 효과
 - 월간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태양광에너지로부터 사용하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확대할 것으로 목표

< Schneider Electric의 넷제로 계획 >



Schneider Electric strengthen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in Indonesia



* 자료 : Schneider Electric, The Jakarta Post

벤치마킹 사례 : Alfa Laval (스웨덴)

□ 기업 개요

- 인도네시아 진출 연도 : 1993년
- 관련 HS코드 : 8421.21(물 여과기 및 청정기)
- 주요 품목 : 수처리 시스템, 보일러, 열교환기, 분리기 등

□ 추진 활동 및 의의 : 유망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

- 인도네시아 정부는 넷제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Alfa Laval은 유망 산업 중 하나인 토륨*을 활용한 그린 암모니아 사업에 참여 중
 - * 토륨은 경제적인 그린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21~27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2023년 5월, Alfa Laval은 인도네시아의 대표 요소 비료 생산업체인 Pupuk Kaltim, Topsoe, Aalborg CSP 등과 협업을 결정하고 Alfa Laval은 전해조 생산을 위한 수처리 기술을 제공하기로 협의

< Alfa Laval의 인도네시아 그린 암모니아 사업 참가 >



Pupuk Kaltim President Director Rahmad Priyadi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studying green ammonia production with Copenhagen Atomics, in Copenhagen, Denmark on May 19 2023. (Photo: Pupuk Kaltim for TIMES Indonesia)

TIMESINDONESIA, BONTANG – PT Pupuk Kalimantan Timur (**Pupuk Kaltim**) together with Copenhagen Atomics, Topsoe, Alfa Laval, and Aalborg CSP initiated a collaboration to study green ammonia production using thorium-based energy.

* 자료 : Times Indonesia

- ◆ 제2장과 3장에서 도출된 유망품목군별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한 시사점
- ◆ 글로벌 경제 및 무역에서의 인도네시아 중요성을 인지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상생 경제 발전을 도모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50대 유망품목 시사점

- 인도네시아의 최근 5개년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50대 유망품목을 선정
 - △수입시장 성장률, △수입시장 규모, △한국산 수입 점유율을 기준으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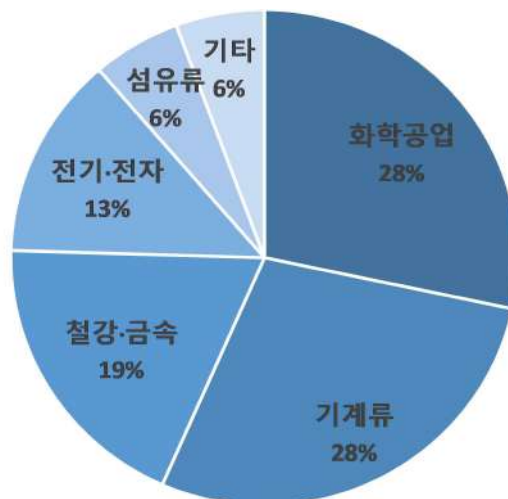
< 50대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유망품목 >

HS코드	산업/분야	대표 제품	HS코드	산업/분야	대표 제품
2106.90	식품	홍삼 음료, 커피 조제품	7228.30	철강소재	합금강 봉
2710.19	석화, 자동차	윤활유, 휘발유	7305.11	철강소재	철강 관
2803.00	정밀화학	카본 블랙	7326.90	철강, 기계	보빈, 철강 제품
2934.99	정밀화학	농약 원제, 의약품 원료	7601.20	철강소재	알루미늄 합금
3208.90	도료	페인트, 코팅제	7606.12	철강소재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3304.99	화장품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8402.90	산업기계	열교환기, 과열수 보일러
3808.92	정밀화학	농약 원제, 살균제	8413.70	산업기계	터빈펌프, 볼류트펌프
3901.90	합성수지	폴리에틸렌(PE)	8413.81	산업기계	유압공급장치, 배수펌프
3902.30	합성수지	폴리프로필렌(PP)	8419.90	산업기계	물 가열기, 증류기
3906.90	합성수지	아크릴 중합체	8421.21	산업정밀기계	물 여과기, 청정기
3907.30	합성수지	에폭시 수지	8421.31	기계, 자동차	내연기관 공기 여과기
3907.40	합성수지	폴리카보네이트(PC)	8428.33	산업기계	컨베이어 벨트, 엘리베이터
3909.50	합성수지	폴리우레탄(PU)	8428.90	기계, 중장비	유압 리프트, 적하 기계
3910.00	합성수지	실리콘수지	8429.52	중장비	굴착기
4819.20	패키징	포장용 상자	8431.49	중장비	유압 브레이커, 무한궤도 트랙
6004.10	섬유	탄성 섬유	8477.90	산업기계	고무 사출성형기 부품
6006.32	섬유	합성 섬유	8479.89	산업기계	프레스, 코팅기
6006.90	섬유	기타 섬유	8479.90	산업기계	금속처리기 부품
6406.20	생활용품	신발 부분품	8481.80	산업기계	배관 밸브, 유체제어기
6902.10	건설	내화 벽돌·타일	8534.00	전기·전자	인쇄회로
7208.51	철강소재	비합금강 평판 압연	8537.20	전기·전자	변압기, 고압배전반
7210.70	철강소재	클래드 강	8542.31	전기·전자	프로세서, 변환기
7213.91	철강소재	비합금강 봉	8542.90	전기·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모듈
7225.50	철강소재	합금강 평판 압연	8543.70	전기·전자	고주파증폭기, 오디오
7225.92	철강소재	합금강 평판 압연(아연)	8544.42	전기·전자	와이어하네스, 절연전선

- 품목별 HS코드와 MTI코드와 연계를 통해 관련 제품군으로 재분류 시 화학공업과 기계의 비중이 가장 크며, 철강·금속과 전자·전기가 뒤를 이음
- 인도네시아 GDP 중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점(18.3%)과의 관련성이 존재
- 상위 4개 품목(화학공업, 기계, 철강·금속, 전기·전자)의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하며, 관련 제품군과 분야를 인도네시아 수출 유망 산업으로 분석 가능

< 유망품목 제품군 >

제품군	품목 수	비중	HS코드
화학공업	15	28%	2710.19 2803.00 2934.99 3208.90 3304.99 3808.92 3901.90 3902.30 3906.90 3907.30 3907.40 3909.50 3910.00 4819.20 6902.10
기계	15	28%	7326.90 8402.90 8413.70 8413.81 8419.90 8421.21 8421.31 8428.33 8428.90 8429.52 8431.49 8477.90 8479.89 8479.90 8481.80
철강·금속	10	19%	7208.51 7210.70 7213.91 7225.50 7225.92 7228.30 7305.11 7326.90 7601.20 7606.12
전기·전자	7	13%	8479.89 8534.00 8537.20 8542.31 8542.90 8543.70 8544.42
섬유	3	6%	6004.10 6006.32 6006.90
생활용품	1	2%	6406.20
농림수산물	1	2%	2106.90
광산물	1	2%	2710.19



* 제품군은 MTI코드와의 비교·연계로 도출하였으며, 일부 HS코드(2710.19, 7326.90, 8479.89)의 중복 제품군 존재로 합계가 50개를 초과함

□ 유망품목군별 수출 확대 전략 시사점

- 선정된 50대 유망품목을 △수입시장 규모, △한국산 수입 점유율을 기준으로 4분위로 분류(군집)하여 품목군별 수출 확대 전략과 방안을 제시

<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유망품목군 >

품목군	내용	
1군 (15개)	HS코드	·2106.90 2710.19 2803.00 3304.99 3902.30 3909.50 6004.10 6006.32 7210.70 7225.50 7228.30 7606.12 8402.90 8429.52 8542.31
	주요 특징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력 또한 우수한 수준인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주력 상품 ·소비재(건강식품, 화장품)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한류 열풍, 현지 소득수준 상승, 팬데믹 이후 건강 인식 변화 등에 기인
2군 (10개)	HS코드	·3901.90 3906.90 7326.90 7601.20 8413.70 8431.49 8479.89 8481.80 8534.00 8542.90
	주요 특징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 시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을 대폭 개선하는 등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확대 도모 집중상품 ·산업 발전의 기반인 기계류 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며, 정밀화학제품(합성수지)과 전자부품(인쇄회로, 메모리 모듈 등)이 뒤를 이음
3군 (10개)	HS코드	·3208.90 3808.92 3907.30 3907.40 6006.90 6406.20 7213.91 8413.81 8421.31 8428.90
	주요 특징	·한국 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력은 일정 수준 확보되었으나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 규모의 한계로 능동적인 개척을 필요한 품목군 ·자동차 부품(내연기관 공기 여과기) 및 중장비(적하 기계 등) 품목의 현지 산업 발전 및 수도이전 정책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 기대
4군 (15개)	HS코드	·2934.99 3910.00 4819.20 6902.10 7208.51 7225.92 7305.11 8419.90 8421.21 8428.33 8477.90 8479.90 8537.20 8543.70 8544.42
	주요 특징	·현지 산업 및 수입시장의 규모 확대와 한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품목군으로 상대적으로 중장기 접근을 요구하는 품목군 ·기계(사출성형 기계, 증류기 등), 철강(비·합금강 평판 압연 등), 전기기기(변압기, 와이어하네스 등) 등 다양한 산업 품목이 고루 분포

1군	▶ 프리미엄화 및 시장 선도 전략 품목군
2군	▶ 차별화 마케팅 및 기회 포착 전략 품목군
3군	▶ 현지 산업 주도 및 개척 전략 품목군
4군	▶ 중장기 전략 품목군

< 유망품목군별 수출 확대 전략 >

품목군	수출 확대 전략
【1군】 시장규모 ↑ 한국M/S ↑	▶ 프리미엄화 및 시장 선도 전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미엄화를 통한 수익 확대 도모 ·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신기술 및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
【2군】 시장규모 ↑ 한국M/S ↓	▶ 차별화 마케팅 및 기회 포착 전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홍보 마케팅으로 현지 인지도 및 점유율 확대 · 점유율 상위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 벤치마킹 · 수평적 확장을 통한 비유기적 성장
【3군】 시장규모 ↓ 한국M/S ↑	▶ 현지 산업 주도 및 개척 전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정부 및 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산업 발전을 주도 · 시범사업을 통한 신산업 육성 · 시장 리더십 강화
【4군】 시장규모 ↓ 한국M/S ↓	▶ 중장기 전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산업 육성정책 및 제도 동향 모니터링 ·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① 프리미엄화 및 시장 선도 전략 품목군

- 전체 수입시장의 규모가 크고,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
- 주요 전략으로는 △프리미엄화를 통한 수익 확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기술 및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가 있음
- 프리미엄화는 높은 품질과 가치를 강조하여 브랜드를 강화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하여 더 높은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전략
-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현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미래 요구에 대응하고자 기술과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

② 차별화 마케팅 및 기회 포착 전략 품목군

- 해당 품목군은 수입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규모 있는 전체 수입시장으로 인해 큰 잠재력을 가진 품목으로 구성
- 주요 전략으로는 △디지털 홍보 마케팅을 통한 현지 인지도 및 점유율 확대, △선도기업 벤치마킹, △수평적 확장을 통한 비유기적 성장 도모가 있음

- 디지털 마케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현지 소비자의 온라인 행동을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선도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수출 확대의 방법
-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수평적 확장을 통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③ 현지 산업 주도 및 개척 전략 품목군

- 수입시장의 전체 규모는 작지만,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
- △현지 정부 및 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산업 발전 주도, △시범사업을 통한 신산업 육성, △시장 리더십 강화가 주요 전략
- 현지 정부 및 사회와의 협업은 산업 발전을 지원받고 현지 시장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파일럿 프로젝트 등 시범사업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사업 모델을 검증하며 성장 가능
- 산업 내에서 리더십을 강화하여 브랜드의 신뢰성과 지위를 높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필요

④ 중장기 전략 품목군

- 수입시장의 규모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으로 구성
 - △중장기 로드맵 수립, △산업 육성정책 및 제도 동향 모니터링,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가 주요 전략
 - 중장기 로드맵은 잠재적인 성장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수이며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
 - 현지 정부의 정책과 제도 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
 - 로컬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
- 각각의 품목군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기에 기업의 목표와 역량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는 능력이 품목군별 수출 확대 전략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

□ 경제·무역 관점에서 바라본 인도네시아의 중요성

-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 및 인구 측면에서 1위 국가
 - 인도네시아의 2022년 경제는 1조3천억 달러 규모로 아세안 1위, 세계 16위를 기록, 향후 5%대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세계 4위 수준인 2.76억 명의 거대 인구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
- 글로벌 경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자국화 노력이 특징
 - 국가 로드맵인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통해 7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을 목표
 - 니켈, 보크사이트 등 핵심 광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고 해외기업의 현지 제련소 설립과 다운스트림 산업 발전을 유도하며 자원부국의 이점을 적극 활용 중

<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현황 >

P 정치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자동차, 전자 등)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석 수출금지	T 기술	·고부가가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 ·디지털 정책, 모바일 사용시간 세계 1위
E 경제	·경제 규모 아세안 1위, 세계 16위 ·경제성장 5% 전망(세계 평균 2.8%)	E 환경	·누산타라 신수도 이전 국가 대형 프로젝트 ·탈탄소화 및 친환경 전환의 본격화
S 사회	·2.76억 명 거대 인구(세계 4위) ·국민소득 5년간 6.4% 성장, 구매력 상승	L 법률	·옴니버스법으로 구조개혁 기반 마련 ·제품 전반에 할랄 인증 의무화 예정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대외교역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9.4% 성장
 - 세계 경제 위기마다 회복세 전환에 성공하며 글로벌 무역 입지를 확대 중이며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광물 보유 이점으로 무역수지 대폭 개선
 - * '18~'22년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변화(억 달러) : △87 → △36 → +216 → +354 → +545
 - 주요 교역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나 중국과의 교역액 비중이 25%에 차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위	중국(727)	중국(729)	중국(714)	중국(1,100)	중국(1,336)
2위	일본(374)	일본(317)	미국(272)	미국(370)	일본(420)
3위	싱가포르(344)	싱가포르(305)	일본(243)	일본(325)	미국(398)
4위	미국(286)	미국(271)	싱가포르(230)	싱가포르(271)	싱가포르(338)
5위	한국(186)	말레이시아(166)	말레이시아(150)	말레이시아(214)	말레이시아(279)
6위	말레이시아(179)	태국(157)	한국(134)	한국(184)	한국(245)
7위	태국(178)	한국(157)	태국(116)	태국(162)	태국(192)

- 對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
 - 인도네시아의 주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이나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으며, 최근 對말레이시아 수입이 급증가 추세
 - * '18~'22년 인니의 對중·싱·일 수입 의존도(%) : 45.0 → 45.6 → 44.3 → 44.0 → 43.9
 - ** 말레이시아는 급성장세(3개년 CAGR, 17.3%)로 '22년 인도네시아 수입 대상국 4위에 등극
 - 반면, 최근 20년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대상국 중 상위권(4~9위)에만 위치하며 최상위권(3위권 내)에 등극하지는 못하고 있음
 - * 한국 순위 : ('03~'10) 6~9위 → ('11) 4위 → ('12~'13) 5위 → ('14) 4위 → ('15~'22) 5~7위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위	중국(455)	중국(449)	중국(396)	중국(562)	중국(677)
2위	싱가포르(214)	싱가포르(176)	싱가포르(123)	싱가포르(155)	싱가포르(194)
3위	일본(180)	일본(157)	일본(107)	일본(146)	일본(172)
4위	태국(110)	태국(95)	미국(86)	미국(112)	말레이시아(125)
5위	미국(102)	미국(93)	말레이시아(69)	말레이시아(95)	한국(117)
6위	한국(91)	한국(84)	한국(68)	한국(94)	미국(116)
7위	말레이시아(86)	말레이시아(78)	태국(65)	호주(94)	태국(110)

- 본 보고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며 對인도네시아 수출 성장세를 유지 및 확대하여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고자 함
- 보고서에서 도출한 50대 유망품목과 유망품목군은 현재 시장 상황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처가 함께 이뤄져야만 對인도네시아 수출국으로의 Next-level 도약이 가능
- 또한, 인도네시아를 단순 수출 대상국을 넘어선 협력 파트너로 인지하며 양국 간의 상생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함

작 성 자

- 아시아중아팀 박주호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데이터 인사이트] 인도네시아 유망품목군 수출 확대 전략

Global Market Report 23-023

발 행 일	2023년 9월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아시아중아팀(02-3460-7674)

• ISBN: 979-11-402-0713-8 (95320)



